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애프터 코로나
단기선교 매뉴얼 4.0

듣기 하라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실천적 행위야말로 ‘선교’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나에게 단기선교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모든 삶을 통해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단기선교를 통해 영웅적인 일을 하고 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웅적인 삶이 아닌 평소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

선교여정을 마치고 복귀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가족과 친구들과 재회하면서 일상의 안도감과 평안을 느끼면서 또한 선교여정을 통해 경험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기선교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당연히 선교사들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단기 선교는 더 이상 선교일 수 없으며, 그것은 자기만족의 행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동 중에 있다. 그러나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동 중에 있다. 앞으로의 선교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 거룩한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 본문 가운데

애프터 코로나 단기선교 매뉴얼 4.0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다시 시작하는 선교

김정석 감독 (선교국 위원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세상의 많은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도 멈췄습니다. 외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다시 연결되어야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교회의 목적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실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자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사후 영국에서 수많은 감리교회가 생겨났는데, 그중에 원시 감리교회(Primitive Methodist Church)는 모든 감리교인이 선교사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최우선순위를 전도와 선교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감리교인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메리카로 이주하였고 그들의 성실한 삶과 복음을 대한 열정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선교는 선택의 문제 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중인 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본부 선교국에서 단기선교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사례와 적용에 이르기까지 귀한 자료를 모으고 편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책자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왜 단기선교인가?

오일영 총무(선교국)

‘하나님이 일으키실 위대한 모험’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대상 12:32) 안목과 분별력 그리고 실천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절이다.

코비드-19의 상황이 이처럼 길어질 것이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길어야 3개월 정도겠지 했던 예상은 무너지고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상 속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던 거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았고 교회와 선교지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교회의 연례 선교 이벤트처럼 진행된 해외 단기선교도 코비드-19 이후 일시에 중단됐다. 현장의 선교사들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귀국하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 정도나 보건의료 체계, 방역 능력 등이 나라마다 다른 가운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 더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단기선교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어떤 이는 이제 단기선교의 시대는 끝났다 한다. 아마도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해오던 방식의 단기선교는 막을 내렸다는 표현일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에 단기선교가 멈춘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처음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단기선교 매뉴얼] 자료집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고, 때맞춰 서울연회에서도 [단기선교 매뉴얼]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지금까지 정립된 단기선교에 관한 총론을 정리하고, 진행된 단기선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함께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10여 년을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며 단기선교팀을 바라본 영사의 시선과 이야기도 담았고, 참고할 자료로 미연합감리회(U.M.C.)의 단기선교 매뉴얼인 [여정]의 매일 성경묵상과 나눔을 번역 소개했으며 참고서적 리스트도 함께 실었다. 아울러 실험적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단기선교의 대안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상해보았다.

이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단기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단순히 “Re-OPEN”만 되어서는 안 된다. “Re-START”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이 성찰의 시간에 [단기선교 매뉴얼]을 세상에 내놓는다. 교회공동체 현장에서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계속 보완되고, 현장에서 다시 보태지면서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엄중한 시절에 귀한 주제를 가지고 써름해주신 준비위원 분들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차례

축사 : 김정석 감독(선교국 위원장) 002

발간사 : 오일영 총무(선교국) 003

chapter 1 007

총론 : 단기선교란 무엇인가

chapter 2 027

단기선교의 기획 및 실제

chapter 3 047

사례 : A/B 교회

chapter 4 091

경험 후 : 단기선교 : 두 가지 경험

단기선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쓰임의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약한 나를 강하게

참고자료 115

1. 선교 여정 / 말씀목상과 나눔자료

2. 제안 / 'K-원정대', 313 래더버스(ladder-verse) 타보기

3. 참고서적

총론

단기선교란 무엇인가



1

CHAPTER

단기선교란 무엇인가

/ 들어가는 말 /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바꾸고 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당연히 행하던 공식행사들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 특별히 항공교통의 발달로 이웃 나라들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해외여행은 완전히 멈추어버렸다. 각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국경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선교지 곳곳에서 종교적, 민족적 이유로 선교사의 추방과 비자발적 철수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아예 다른 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문들 자체가 닫혀진 상태가 되었다. 그러기에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이전과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미래학자의 예측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곳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타문화권과 관련된 선교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의 단기선교는 2008년부터 활발해진 해외여행과 맞물려 폭증

하였다. 이후로 많은 교회가 해외로, 국내로 나아가 단기로 선교사역을 진행하였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단기선교를 귀한 선교의 자원으로 사용하셨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힘을 얻고 현지교회들은 아직 연약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큰 유익을 얻었다. 하지만 간혹 선교지에서 들려온 소리는 고마움의 소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단기선교에 대하여 우려하는 염려의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감사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던 단기선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멈추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중요한 선교 자원으로 사용하시던 단기선교가 완전히 멈추어지게 되었다. 필자는 지금 이 시간을 정말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멈추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교의 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모든 면에서 변할 것이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선교사역도 당연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다가올 넥스트 미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껏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자원으로 사용한 단기선교를 하나님의 넥스트 미션에 합당하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단기선교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재정의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왔던 우려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단기선교를 정비해야 한다.

1. 하나님의 선교와 단기선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요한계시록 7:9-10)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아

와 예배드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풍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선교하고 계시다(요한복음 5:17).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신앙공동체이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사도(아포스텔로, 뉴 6:13)’이다. ‘사도(아포스텔로)’는 있는 힘껏 멀리 던져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실 때, 제자들의 직함의 이름을 ‘사도’라 하셨다. 예수님이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라 부르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멀리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사실 ‘사도’는 오늘날 의미의 ‘선교사’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께서는 진정한 사도가 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으로 멀리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께서는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타문화권으로 멀리 보내셨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 ‘사도’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문화권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도’처럼 있는 힘껏 멀리 보내고 계시다.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선교사들을 보내고 계시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사도’처럼 멀리 보내고 계시다. 세계 곳곳의 잊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이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단기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선교 자원이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단기선교에 직접 참여함으로 선교의 일이 선교사, 몇몇 개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교의 자원으로 사용하시는 단기선교는 무엇인가?

1) 단기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에서 단기선교 사역이 실제적인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서구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이다. 특히 항공교통의 발달은 ‘단기선교’를 전세계교회, 단체로 확대시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전략이 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지역교회가 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참여하는 단기선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특히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God’s Mission)의 큰 그림 안에서의 단기선교를 이해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단기 선교(Short-Term Mission)란 말은 ‘단기’와 ‘선교’가 결합한 말로서 ‘단기’란 말이 붙여진 것은 장기 선교사와 그가 하는 미션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선교에 ‘단기’라는 말을 붙일 때의 의미는 장기적인 거주나 영구적인 이주가 그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단기로 타 문화권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기선교’를 정의한다면 일정 시간을 정하여 내가 거주하는 것을 벗어나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단기선교로 이해할 수 있다. 장기의 시간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한 모든 일이 일어난다

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정의한 ‘단기선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성경에 나타나는 단기선교

성경에 단기선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단기선교’의 정의대로 단기적으로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나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역이 일어난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비형식적 교육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탁월하게 선교 훈련하셨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림이 ‘사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갈릴리 시골 마을이 인생의 대부분 경험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타 문화권인 ‘빌립보 가이사랴(마태복음 16:13)’로 여행을 떠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단기선교를 떠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인가?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 안에 있던 로마를 상징하는 데카폴리스(DecaPolis) 중의 하나이다. 이곳은 로마 황제 빌립보를 기념하는 도시이다. 이스라엘 안에 이보다 타 문화권의 향내가 진동하는 곳이 있을까? 주님은 의도적 계획을 가지시고 열두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로마 문화의 이국적 풍경 아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암도할 것 같은 로마 문화 아래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한다.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

사실 예수님의 ‘빌립보 가이사랴’로의 방문은 앞서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선교 원칙과 벗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10:5-6).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이끄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비전트립을 떠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잃어

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전도 명령을 내리신 주님께서 로마 문화로 세워진 도시, 헬라 문화의 끝판왕인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려오신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여행을 계획하셨을까? 이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려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열두제자들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도’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로의 여행을 통하여 제자들이 후에 타 문화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다.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문화권 아래에서도 분명히 고백 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복음이 결코 유대인 안에 갇히지 않도록 선교의 씨를 제자들 안에 심어놓으셨다. 이것은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들고 용기를 가지고 타 문화권으로 넘어가 진정한 사도가 되게 하였다.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가신 예수님의 여행은 우리가 단기선교를 진행할 때 기대하는 ‘비전트립’의 모습이다. 단기선교 참여자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게 하는 것,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는 것이다.

또 성경 안에서 가장 현대적 의미가 가까운 선교사는 바울이다. 바울은 정말로 ‘사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선교사였다.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권을 떠나 멀리 보내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의 선교사역을 전형적으로 ‘단기선교’라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역함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다. 그는 또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등 팀으로 이루어 선교 사역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흡사하게 바라보는 단기선교팀의 형태를 갖추었다. 바울이 이룬 이 팀은 단기선교에 있어서 팀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사도행전 18:5)” 천하의 바울도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한 팀을 이루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강력한 선교사가 되었다. 단기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멋진 드림 팀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단기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

3) 세계복음화와 단기선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선교해 오셨다. 윌리엄 캐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선교의 해안 시대를 여셨고, 허드슨 테일러를 감동하여 선교의 내륙 시대를 여셨다. 도널드 맥가브란과 캐머런 타운젠드를 감동하사 종족선교 시대를 여셨다. 그리고 랄프 원터를 감동하사 미전도종족 선교의 시대를 여시고 복음에 소외되었던 잊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계시다. 우리는 지금 세계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교가 점점 더 완성해 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마지막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는 더욱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공동체의 자원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갈 것이다. 선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중요한 시기 속에서 단기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선교 가운데 중요한 선교전략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지역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앙공동체의 자원이 혀트되어 쓰이지 않도록 단기선교를 사용하실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시행하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신앙공동체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노출시키시사 장, 단기 선교사를 그 안에서 부르심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다. 장기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소명을 조사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단기선교를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꼽는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완성은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 지역교회 안에서 누구나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단기선교는 선교 자원으로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다.

2. 사역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단기선교

일정 시간을 정하여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한 단기선교는 그 사역의 목적과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구분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비전트립(Vision Trip)',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미션트립(Mission Trip, Outreach Mission)'으로 구분한다. 또 전문적인 사역이 결합되어 선교지의 장기 선교사와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사역을 '단기선교 사역(Short-term Ministry)'이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참가자가 직업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비거주 단기선교(Non-Residential Short-Term Mission)'가 된다. 이렇게 큰 틀로 단기선교 사역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가 참여하는 단기선교는 자연스럽게 그 사역 형태가 혼합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1) 비전트립(Vision Trip)

비전트립은 말 그대로 선교 참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여행이다. 비전트립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간다. 따라서 이 사역 형태는 주로 교회학교와 젊은 층에서 진행하며 선교사역보다는 참여자의 비전 발견하기에 그 초점이 있다.

비전트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단기선교 후에 참가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선교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선교에 대하여 알고 선교지의 소식에 궁금해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비전트립은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선교에 드린 선교 현신자들의 시작도 대부분 이 비전트립에서 시작되었다. 비전트립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에 첫 눈을 뜨게 하여 점차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게 한다.

2) 미션트립(Mission Trip, Outreach Mission)

미션트립은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돋기 위하여 복음 증거 사역이 주 선교 사역이 되게 하는 형태이다. 비전트립의 참여자들이 선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미션트립에 참가한 사람들은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단기선교는 이 사역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역교회와 현장 선교사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본국에서 미리 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비전트립 형태의 단기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미션트립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미션트립의 유익은 단기선교에 참여한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인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교회가 나아갈 신앙공동체의 방향이다.

3) 단기선교 사역(Short-Term Ministry)

단기선교 사역이 미션트립과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전문성에 있다. 이 사역 형태는 단기선교 가운데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현장 선교사와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우물을 퍼주는 선교사역이 전개된다면 우물을 팔 수 있는 전문적인 단기선교사가 파송되어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에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전문성인 총독의 지위를 갖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성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굳건히 닫힌 국경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교 현지 스스로가 자신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이다. 그러기에 전문적인 기술과 연계하는 단기선교 사역은 코로나 이후의 단기선교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4) 비거주 단기선교(Non-Residential Short-Term Mission)

단기선교와 전문인 선교가 결합한 형태로서 선교의 문이 점점 닫히는 현재의 선교 상황 가운데 전략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록 본국에서 살고 있지만, 선교 참여자의 마음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한다. 선교지의 여건상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거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의 여건이 어려울 때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여 선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표1 사역 형태에 따른 단기선교〉

구분	용어	기간	목적	사역 형태
1	비전트립 Vision Trip	1~4주 1개월미만	참가자에게 선교 비전 심어주기	타문화권을 경험함으로 모든 민족들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2	미션트립 Mission Trip, Outreach Mission	1~4주 1개월미만	복음 전하기	타문화권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3	단기선교 사역 Short-Term Ministry	1개월이상~ 3년미만	장기 선교사와의 협력	일정 시간에 장기 선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현장에 필요한 사역하기
4	비거주 단기선교 Non-Residential Short-Term Mission	프로젝트 진행기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하기	선교지의 여건상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곳에 전문 기술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3. 단기선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시고자 하는 선교전략 가운데 단기선교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하는 지역교회, 현장 선교사, 현지교회 또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개인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단기선교 가운데 누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나서에서 선교사는 누구인가? 사실 요나는 구약 안에서 오늘날 선교사로 정의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

는 것, 이것이 선교사에 대한 정의이다. 이 선교사의 정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로 선교하러 갔지만, 요나서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선교를 받은 대상은 요나였다. 니느웨를 선교하러 간 요나는 자신의 선교사역 여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를 받은 사람이다. 요나의 인생 중에 이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한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단기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단기선교에 참여한 나는 현지인들을 향하여 선교하지만, 그 단기선교 여정 가운데 나도 선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를 받게 된다.

1) 지역교회가 기대하는 단기선교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다. 교회는 그 존재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이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세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파송하시려는(벧전 2:9) 주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다. 그러기에 교회공동체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씨름해야 한다.

단기선교는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돋는 가장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단기선교에 교회가 참여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회중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후원하는 일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단기선교를 진행한 대부분의 교회는 자신의 신앙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 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기독교 역사상 신앙공동체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 선교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과 선교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

하여 함께 이루어 온 일이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부흥 운동과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연관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문을 일으킨 허드슨 테일러의 가문은 감리교 부흥 운동을 통하여 일어났다. 지역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된 교회는 선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선교사가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교회 안에서 배출되게 된다. 지역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자신의 신앙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전임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2) 선교사가 기대하는 단기선교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역한다. 하지만 선교 현장은 그렇게 녹녹한 곳은 아니다. 특별히 이제 남은 선교의 현장들은 선교적 돌파를 이루어내기가 힘든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면 선교사들은 곧 영육 간에 탈진이 되고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러할 때 단기선교는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영적인 활력을 제공해준다. 사실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 고립되어 있다 보면 당연한 것도 잊히고, 쉬운 것도 어렵게 보이고, 힘든 것은 아예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선교팀과의 협력을 통하여 현장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견고한 오래된 진을 돌파해 나가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다. 특별히 현장 선교사와 잘 연계된 단기선교는 이런 목적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 선교사에게 단기선교는 사역을 보다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단비 같은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단기선교팀은 때론 선교지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파송 전에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단기선교팀은 오히려 선교 현장에 해가 된다. 복장 하나도 선교의 내용이 되는 선교지에서 여행의 분위기로 온 단기선교팀은 오히려 장기 선교사에게 해를 끼쳐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 단기선교팀이 방문한 후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장기 선교사가 더 이상 그 지역을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일도 선교지에서 간 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지역교회는 반드시 현장 선교사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교회가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단기선교팀이 방문한 곳이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3) 현지교회가 기대하는 단기선교

한동안 한국교회가 단기선교를 진행하면서 잊힌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현지교회와 성도들이다. 물론 단기선교는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인들 가운데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단기선교 가운데 현지교회와 성도들이 잊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단기선교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단기선교의 방향은 현지교회와 관련한 우리의 시선과 태도이다. 우리는 현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현지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진행하는 단기선교 사역들의 내용과 방식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무언가 많이 준비하여 가서 단순히 퍼주는 식의 단기선교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 안에 그들도 우리처럼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단기선교 사역의 시도들이 일어나야 한다.

사실 현지교회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선교사역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가졌기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그들도 함께

동역자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단기선교 사역을 보고 현지교회들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단기선교가 되어야 한다. 현지교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 현지교회들이 우리처럼 단기선교를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사역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서구의 교회들과 한국교회만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계 모든 교회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적으로 선교하려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비전이다. 그러기에 현지교회를 향한 우리의 단기선교는 변해야 한다.

4) 개인이 기대하는 단기선교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개인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의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신다(고전 1:21).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에 단기선교는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 단기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사람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에 눈을 떠 선교에 관심을 두고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도록 하는 장기 선교사의 부르심으로 이끈다. 이렇게 단기선교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갖게 되는 변화의 과정은 ‘선교관심자’에서 출발하여 ‘선교봉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교참여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선교동역자까지 나아가게 된다.¹

또 단기선교는 선교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선교’와 관련된 일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선교를 ‘제자훈련’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있듯이 단기선교 사역 가운데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훈련이 함께 진행된다. 하

나님께서 단기간에 팀을 이루어 선교하는 단기선교팀 안에 한 개인을 두사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어 그들의 내면과 성품을 깊이 다루신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노출되게 만드는 제자훈련이 있을까?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깊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4. 코로나 이후의 단기 선교 방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단기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이미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의도대로 마지막 도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서진하고 있다. 윌리엄 캐리 이후 현대적 의미의 선교가 등장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서구 교회를 사용하셨고 놀랍게도 백여 년 전 복음을 받 아들었던 미약했던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 복음의 눈으로 세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세계 오지 곳곳에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전히 지역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선교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곳으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단기선교팀을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단기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1) 단기선교의 철저한 특화

지금까지 지역교회에서 진행한 단기선교가 혼합된 사역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앞으로 단기선교는 그 색깔들이 더욱 분화되어 단기선교의 목적에 따라 분명해질 것이다. 선교지의 문들이 더욱더 굳건히 닫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비전트립은 더 철저한 위장 여행 형태가 될 것이고 단기선교는 더 철저한 전문성을 갖춘 형태로 특화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지역교회나 단체도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진행하여 어려워진 선교 상황을 대비하게 될 것이다.

2) 전문성을 갖춘 단기선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은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꼭 가야만 하는 단기선교는 어떤 형태인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사역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들은 선교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 이기에 선교지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선교지로 간다. 따라서 앞으로의 단기선교는 전문성을 갖춘 사역 형태로 더욱더 발달하여 나갈 것이다. 우리의 필요 보다 현지교회의 필요에 민감한 형태로 전략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갈 것이다. 이런 사역 형태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재능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여 단기선교 사역에 참여시켜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된 가운데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닫힌 국경의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 기술, 농업, 교수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이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단기선교 형태는 앞으로 더 절실하게 요청될 것이다.

3) K-미션이 되게 하라!

K-Pop, K-Drama로 불붙여진 한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K-방역, K-메디컬에까지 확장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것이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선교에서도 K-미션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교의 모델이 되는 K-미션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이것은 여타의 K-브랜드들이 걷고 있는 길과는 다른 의미이다. 한국은 원래 복음을 알지 못하였던 미전도종족이었다. 하지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의 시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전 세계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현지교회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이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미약한 교회가 자라나 하나님의 선교에 주역이 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놀라운 스토리이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이 길은 선교 현지의 모든 교회가 걸을 수 있는 길이고 걸어나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다. 선교를 받은 대상 현지교회들이 자라나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K-미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시행하는 독특한 단기선교의 방법을 매뉴얼화 하여 현지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갈 수 있도록 단기선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4) 선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단기선교

세계를 하나로 잇는 인터넷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새로운 조직에 대한 단어는 ‘네트워크’이다. 조직이라는 말이 전통적인 계층적 의미로 구조를 이해한다면 네트워크는 ‘자주적인 개인 또는 유닛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연계하여 협동하는 새로운 조직형태’¹²이다. 각각의 존재나 단체가 자신의 고유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협업하여 결과물을 내는 것이 네트워크의 구조이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은 각각의 단체가 가진 선교 자원을 공유하여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선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는 어떤 선교 기관도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의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하여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선교를 수행하여야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사역이 절실히 요청되는 곳이 바로 단기선교이다. 단기선교를 기획하는 지역교회, 단기선교팀을 받는 현장 선교사, 단기선교팀이 사역하는 현지교회 모두가 긴밀한 선교네트워크를 이룰 때 단기선교 사역은 극대화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선교는 함께 사역하는 네트워크 사역을 더욱더 요청한다. 지역교회, 현장 선교사, 현지교회들이 함께 이루는 긴밀한 네트워크는 우리가 가진 선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껏 단기선교에 관하여 들려왔던 우려의 소리는 대부분 긴밀한 네트워크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교회는 선교 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기선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선교 현지에 대한 몰이해는 긴밀한 선교네트워크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 또 현장 선교사들은 단기선교팀을 파

송하는 지역교회의 입장을 헤아려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별히 현장 선교사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교 현지에서 이루어내는 다른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 때문이다. 긴밀한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더 시급하고 더 적절한 곳에 단기선교팀이 우선으로 배분되어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선교사들은 현지교회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선교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지역교회에 요청하여 긴밀한 선교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분명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의 걸음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늦어진 걸음은 결코 늦어진 걸음이 아니라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룬 후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더 빠른 걸음이 된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함께 선교해나가는 법,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5. 교회에서 시행하는 실제적인 단기선교 사역

지역교회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단기선교는 크게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 ‘파송 전 – 파송 – 파송 후’의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또 단기선교 과정 전체가 지역교회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훈련이기에 ‘사전훈련(pre-field training), 선교지 훈련(on-field training), 사후훈련(post-field training)’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단기선교 전 – 단기선교 중 – 단기선교 후’의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여 단기선교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지역교회들은 이런 형태의 순서로 단기선교를 기획하고 각자 교회의 독특함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각 교회의 특성이 드러나게 한다. 본 책자의 다음 장에 나오는 지역교회에서 시행한 실제적인 단기선교팀의 운영 사례들을 들여다볼 때 단기선교에 대한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읽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나가는 말 ,

‘선교는 여행이다. 선교는 일정한 여정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만유 안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실 그때를 향하여(고전 15:28)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동 중에 있다.’³ 우리는 지금 이동 중에 있다. 그러나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동 중에 있다. 앞으로의 선교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될 것이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렘 33:2)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5:17) 그리고 끝내 완성하실 것(계 21:6)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 거룩한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언하신 요한 웨슬리의 후예로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초대된 사람이다. 우리는 세계를 교구로 삼은 감리교도로 복음을 들고 이동 중에 있다. 감리교도로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로 이동하는 선교사가 되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1 | 백 신종, 단기선교 퍼스펙티브, 서울: 두날개, 2008.

2 | 박 용관, 네트워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3 | 앤드류 커크, 선교란 무엇인가? 신학적 탐구, 서울: CLC, 1999.

단기선교의 기획 및 실제



CHAPTER
2

단기선교의 기획 및 실제

단기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은 보통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기획과 준비 과정, 현지일정, 후속과정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세 단계를 간단히 각각 언급하되 첫 번째 과정인 “준비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어떻게?”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이미 나름대로 단기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아직 단기선교를 잘 모르며 잘 안 되는 보통의 평범한 공동체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 “어떻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론적이거나 너무 거창한 제안보다는 바로 적용하고 따라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다루어 보겠다.

/ 기획과정 /

단기선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우선 단기선교의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방향성의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기획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다음의 세 가지의 질문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첫째 “어디를?”

둘째 “누구와?” 그리고 셋째 “무엇을?”이다. 어디를 갈 것인가의 질문은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단기선교를 할 것인가의 질문은 단기선교의 중요한 파트너인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은 단기선교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1. 선교지와 선교사를 결정

단기선교의 기획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 선교단체가 아닌, 개체 교회에서 단기선교지를 정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먼저 개체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다면 그곳을 단기선교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교회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가장 좋으며,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파송을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으며, 보내는 선교사로 공동체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에도 단기선교팀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며 장기선교에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단기선교팀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체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없는 경우, 즉 연계할 선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선교지 및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목적에 부합한 곳을 찾는다. 공동체의 단기선교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선교지를 결정한다. 단 국가에서 여행금지구역을 정해놓은 나라는 단기선교팀에게는 역부족이라 생각하기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2) 만약 단기선교가 처음인 공동체라면 경제적, 언어적, 사역적으로 부담이 없는 선교지를 찾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항공료 및 체제비가 적은 곳, 가급적이면 영어가 통하는 곳, 선교활동에 제약이 없는 곳이 좋겠다. 왜냐하면 단기선교를 처음하는 공동체에게는 단기선교여행의 성공자체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교권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무슬림권(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불교권(인도차이나 지역 일대, 티벳, 몽골, 일본 등), 힌두권(인도, 네팔 등) 등 종교권을 고려하여 단기선교지를 선정할 수 있다.

4)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국의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 특별히 선교지를 정하기 어렵거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기선교팀이라면 전문 선교단체의 단기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단기선교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타 교회와 연합하여 떠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기선교를 떠나는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를 잘 결정해야 한다.

2. 단기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결정

일단 단기선교를 떠날 선교지와 선교사가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단기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단기선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실제는 여행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¹

단기선교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에 따라 단기선교의 준비 과정이 계획되고, 예산이 정해지며, 또한 사역적 열매와 보람, 참가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선교의 목적은 추상적이지 않은,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참가하는 현신자들과 교회공동체에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 현지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기선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둘째는 그와는 반대로 단기선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기획과정에서 단기선교의 목적을 정할 때에는 참가자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단기선교의 목적에는 일반적인 두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단기선교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동원하기 위한 단기선교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기선교에 대해서 낯설고 경험이 없을 때 보통 갖게 되는 목적이다.

2) 단기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단기선교 사역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미 단기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단기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의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선교팀의 성장과 훈련을 기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목적이다.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매년 미얀마로 단기선교를 갔다. 처음 2001년 미얀마로 단기선교를 떠날 때의 목적은 “미얀마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사람, 미얀마의 땅, 미얀마의 영적 상황을 보고 정탐한다는 구체적 방향이 잡혔고 이러한 목적으로 가능한 한 미얀마 내의 여러 도시들, 주요 장소, 사역지 등을 방문하는 정탐 위주의 일정이 준비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2006년 단기선교를 갈 때에는 더 이상의 정탐은 필요 없었다. 현지 선교사와 의논하여 미얀마 감리교 신학교를 섭기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단기선교팀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미얀마 신학교에서만 머무르며, 총 40여 명 되는 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시키는 사역(주로 어린이사역)을 준비하여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획과정에서는 “무엇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기선교의 목적은 분명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그 목적에 함께 공감할 때, 단기선교는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기선교의 세부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단기선교의 목적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즉 포괄적인 목적 하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와 같은 단기선교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왜냐하면 단기선교의 목표는 선교지의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단기선교는 선교지의 상황과 부합되어야 하며, 당연히 선교사들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단기선교는 더 이상 선교일 수 없으며, 그것은 자기만족의 행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준비 및 훈련과정 ,

단기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출국 전까지의 단기선교의 준비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단기선교가 진정 효과적인 단기선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단기선교의 성공과 실패는 이 준비 및 훈련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단기선교의 준비 및 훈련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다.

1. 준비 및 훈련 일정을 결정

단기선교는 매년 같은 선교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번 구성되는 선교팀원들이 다르고, 선교지의 상황이 매번 달라지고,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현지인들도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단기선교를 진행할 때 대략 1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정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2주가 안 되었던 단기선교는 사역적 측면이나 관계훈련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약 12주의 훈련은 매주 2-3시간 정도를 활용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더 모일 수도 있

겠지만, 공식적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염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기선교팀원을 모집

훈련 기간을 약 12주라고 생각할 때 공동체에서는 출발을 기준으로 약 5개월 전부터 광고하고 팀원 모집을 해야 한다. 물론 이때에는 단기선교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선교팀 참가자의 규모는 대략 지도자를 포함해서 15명 내외가 좋고 15명 이하의 인원들은 결속력이 쉽게 다져지지만, 사역에 있어서 개인별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또한 반대로 15명이 넘는 인원은 사역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집중이 어렵게 되며, 결정적으로 서로의 관계훈련에 있어서 소위 “끼리끼리”의 약점이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20명 이상의 규모가 함께 단기선교를 진행하게 된다면 팀을 적절하게 나누고,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각 사역을 팀별로 나누어서 분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준비모임이 시작된 후에는 팀원을 추가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3. 항공권 예약

단기선교팀의 지도자는 팀원이 모집되면 가장 먼저 항공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항공권은 일찍 예약할수록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단기선교에 필요한 재정 중에서 항공권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단기선교의 경험이 많은 공동체나 지도자라면 직접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보고 구입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기선교팀의 팀원이 모집되면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팀원들의 여권정보를

수집해 놓는다. 또한 방문하는 선교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비자발급 준비도 병행해서 한다.

4. 단기선교의 준비 및 훈련 내용

1) 선교지 리서치

리서치란 말 그대로 단기선교를 떠날 선교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리서치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지가 몽골일 경우에는 몽골의 정치, 경제, 역사, 교육, 종족, 종교, 문화, 가정, 자연환경, 최근 언론기사, 몽골선교사 등의 주제를 리서치 한다.

이런 리서치의 장점은 리서치를 통해서 선교지를 실제로 더 자세히 알아가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중보기도가 가능하다. 사실 단기선교를 앞두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품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기도가 실제가 되려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이 리서치를 통해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팀원들은 선교지에 대해 하나하나 실제로 알게 될 것이고 그만큼 선교지와 그 땅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 리서치 과정은 정기적인 단기선교 준비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리서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교팀 모임 초반에 인원에 따라 리서치 내용을 분담한다. 인원에 따라 팀으로 엮어도 좋고 개인별로 담당해도 된다. 첫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리서치 제목들을 준비하고 담당하도록 하며 매주 정기모임 시에 리서치를 발표하도록 한다. 리서치는 A4 용지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하고, 내용이 너무 길면 모임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리서치 담당자는 내용과 연관해서 중보기도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기도제목은 세 가지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리서치 후에 그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

2) 북리뷰(이 책에 소개한 참고서적 목록 가운데 이번 단기선교의 목적에 부합하여 교회공동체에 필요한 책을 선정해 사용하면 된다.)

보통 일반적인 선교지에 단기선교팀이 갔을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배, 영적전쟁, 중보기도, 이 세 가지이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선교지의 곳곳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적상황과 맞서 영적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 그리고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그 땅을 위해,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단기선교팀의 중요한 역할이다.

북리뷰는 책 구성(장)에 맞추고, 팀 인원수에 맞게 나누어 맡긴다. 그리고 진도에 따라 모든 팀원은 이 책을 읽어오고, 리서치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는 매주 정기모임 시간에 A4용지 한두 장에 내용을 요약해서 발제한다. 그리고 기도제목 1~2개 정도를 뽑아온다. 발제 후 서로 느낀 점들을 나누거나 기도제목을 바탕으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리뷰를 나누는 시간은 팀원 모두가 그 책을 읽어오기 때문에 발표에는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발표는 각 장별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중보기도까지 전체 20분 정도가 좋다.

3) 팀사역 준비

단기선교에서 팀사역이란 모든 단기선교에 참가한 모든 팀원들이 각자 은사와 열정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역할(Job)을 맡고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단기선교팀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팀원의 숫자에 따라 역할(Job)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역할(Job)로는 팀리더, 찬양인도자, 회계, 서기, 중보기도, 타임키퍼, 라스트키퍼, 작업담당, 섬김, 데코, 의료, 촬영, 물품관리, SUM 등이 있다. 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리더 – 리더는 단기선교의 모든 일정을 이끌어 가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팀모임을 진행하며, 역할분담과 사역 조율을 전체적인 방향에서 관찰하

고 진행한다. 특별히 팀원들의 목회적 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담당해야 한다. 또한 관계훈련에 있어서 팀원들 간의 화합을 지향한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며 현지사역을 위해서 현지 선교사와 긴밀한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한다. 현지사역 시에는 아침모임과 저녁모임을 이끌어야 한다.

- ② 찬양인도자 – 찬양인도자는 모임 시에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이고 경험상 찬양의 은사가 있으며, 공동체를 찬양으로 이끌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하다.
- ③ 회계 – 단기선교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회계는 리더의 권위로 명하여 세우는 것이 좋다. 리더는 정확하고 꼼꼼한 지체를 선별해서 회계를 일임하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리더가 회계까지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계는 선교팀 통장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특별히 후원자 명단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④ 서기 – 준비훈련 일정과 현지사역의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팀 기도 편지, 선교팀 핸드북과 선교 후 보고집 제작 등을 총괄한다. 준비훈련 기간에는 일지 등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현지에서는 작은 수첩을 휴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 ⑤ 중보기도 – 팀 안에서의 중보기도 담당자는 팀원들의 중보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담당하는 역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⑥ 타임키퍼 –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시간이다. 타임키퍼는 모일 시간을 미리 알리고 회집하는 역할을 하며, 현지에서 기상 시간과 취침시간, 모임시간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타임키퍼는 형제와 자매로 분류하여 각각 세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매들의 경우, 아침 모임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알람시계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 ⑦ 라스트키퍼 – 모든 모임의 뒷정리를 담당한다. 모임이 끝나면 정리와 정돈이 필수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분담하여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특별히 준비모임 시에 사용하게 되는 모임장소는 공공

장소일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에어컨, 난방, 열쇠, 책상 정리 등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 ⑧ 섬김(Hospitality) – 섬김의 역할은 선교팀원들에 대한 사랑의 돌봄입니다. 후원자들에게 받은 간식, 텁재정으로 구입한 간식 등을 담당하며, 준비모임이나 선교지에서 리더의 허락 하에 간식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이끌어 갑니다.
- ⑨ 데코 – 선교팀의 홍보에 필요한 피켓이나 기도후원자 현황판, 선교지에서의 애찬식, 귀국 후 선교현장을 알리는 알림판 등을 제작한다. 많은 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혼자 하기 보다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감당하면 좋다.
- ⑩ 의료 – 선교지에서 의료함을 관리하며 아침저녁으로 팀원들의 상태를 돌본다. 선교지에 가면 배탈이나 설사, 감기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들을 돋는 역할을 감당한다. 의료물품이 제공된다면 잘 관리하고, 텁재정으로 사야 한다면 필요한 목록을 만들어서 적당한 양을 구입하도록 한다. 지사제, 변비약, 상처치료제, 해열제, 소화제, 배탈약, 감기약, 밴드, 반창고, 봉대 등이 필수 의료물품이다.
- ⑪ 촬영 – 선교지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요한 사역들을 담는 역할을 한다.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필수이며, 돌아와서 보고예배 때에 보고영상을 제작한다. 촬영시 유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을 담아내도록 한다. 비디오의 경우 영상제작을 고려해서 촬영해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을 촬영하게 되면 영상제작 시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음을 유의한다. 대신 사진촬영은 많이 할수록 좋고, 보고영상은 1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기술적 탁월함보다도 선교지에서의 활동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무난하다. 윈도우 무비메이커나, 베가스, 프리미어 등의 편집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준비기간 중에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다.
- ⑫ 물품관리 – 사역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관리한다. 또한 출국과 귀국 시에 혼란을 피하도록 물품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꼼꼼하게 체

크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해당 물건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고 공동 짐을 챙길 경우, 항공운송을 고려해서 튼튼하게 포장해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테이핑을 하고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장 시에는 사역별로 품목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 ⑬ SUM(Special Utility for Ministry) – SUM은 현지에서의 워십과 드라마 등 사역을 위한 특별한 도구들을 말한다. 준비모임시에 SUM 담당자는 리더와 상의해서 곡을 정하고 워십을 익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워십곡과 더불어서 한국적인 부채춤, 태권무 등을 해도 좋고 드라마는 스kit드라마로 한다. 대사가 많으면 전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에 가능하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극으로 준비한다.
- ⑭ 작업 – 작업담당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거나 짐을 옮길 때, 정리를 할 때, 기타 등등에 있어서 팀원들을 분류하고 일을 위임하는 역할을 한다. 1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 ⑮ 통역 –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일단 언어의 장애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 있는 자체가 유리하다. 또한 현지에 가면 영어사용이 보편적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단계의 통역이 필요하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팀원들은 각각 맡은 역할(Job)을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준비기간 동안, 그리고 현지 일정 속에서도 각 역할(Job)을 감당한다. 이 팀사역을 통해 각 참가자들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 팀을 섬긴다. 이러한 팀 사역의 기회는 참가자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훈련을 통해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역할(Job)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쉽게 설

명해주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

4) 재정 준비

단기선교팀의 인원에 따라, 사역 종류에 따라, 항공권, 후속모임 일정에 따라 재정이 달라지는데, 리더는 전체 재정을 계획하고 그것을 인원수에 맞게 나눈 다음, 공지하도록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재정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비량이 어려운 팀원들을 지혜롭게 배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 다만, 재정은 교회의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정하면 된다.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리더는 회계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집행은 예산에 맞게 집행하되 언제나 리더의 허락 하에서 집행한다.

5) 현지 사역 준비

여기서 말하는 현지사역이란 장기선교사의 권고에 의해서 결정된 “무엇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다. 예를 들면, 장기선교사가 이번 단기선교팀에게 “이리 이러한 사역을 할 예정이니 이런 사역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말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현지에서 활용할 사역을 총칭해서 흔히 SUM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지 사역으로는 워십댄스, 응판동화, 풍선아트, 인형극, 풍물놀이, 난타, 드라마, 무언극, 놀이, 영화상영, 노력봉사 활동, 선교지 성경학교, 노방 전도 등이 있다. SUM 리더의 지도 아래에서 필요한 사역을 결정하고 참가자 전원이 팀별로 역할을 맡아 그 사역 준비를 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잘 되지 않지만 준비기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면 나중에는 탁월한 실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역의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선교를 잘 하는 가까운 교회들에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현지 선교사와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래야만 선교지를 위한 바람직한 사역이 될 수 있다.

6) 예배와 기도 훈련

단기선교팀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작은 언제나 예배로 시작한다. 여기서의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의미하며 단기선교팀 모임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팀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찬양인도자가 이끈다.

또한 준비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도를 훈련 받아야 하며 찬양을 부르다가도 기도한다. 리서치를 한 뒤에도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재정문제, 휴가문제)가 있을 때 역시 기도한다. 선교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주어지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계획을 짜서 릴레이로 금식기도도 한다.

특별히 릴레이 금식기도는 준비모임을 시작한 뒤 보통 한 달 뒤부터 시작하면 좋다. 말 그대로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을 해나가는데 한 끼 금식의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아침금식은 전날 저녁 식사 후부터 점심 식사까지, 점심금식은 아침식사 후부터 저녁식사 까지, 저녁금식은 점심식사 후부터 다음 날 아침식사까지이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한 끼라고 하지만 절대로 만만한 시간이 아니며 제대로 금식다운 금식을 하게 된다. 금식을 마칠 때 다음 금식참가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서로 격려한다. 이러한 시간배정은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의 멤버가 금식을 하는 구조의 기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단기선교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7) 행정적 준비

이 외에도 준비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서약서, 기도편지, 핸드북 등을 챙겨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 ① 서약서 –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선교팀원들은 “단기선교여행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여행 시에 있을 수 있는 사건들과 개인적인 혼신의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지장 혹은 자필서명을 하도록 한다.
- ② 기도편지 – 기도편지는 팀 기도편지와 개인 기도편지를 준비한다. 팀기도

편지는 팀원 사진과 선교국가, 그리고 팀을 위한 기도편지, 그리고 후원계좌를 구성해서 제작한다. 개인기도편지는 개인별로 준비하게 하되, 기도후원자와 재정후원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한다. 개인사진과 선교여행의 동기, 중보기도 제목, 후원계좌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면 되고 이 둘을 묶어서 하나로 제작해도 괜찮다.

③ 핸드북 – 팀원들이 선교지에서 휴대할 핸드북을 제작한다. 핸드북에는 선교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간단한 현지어, 사역일정, 그리고 찬양악보 등을 넣도록 하고 휴대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8) 홍보와 동원을 위한 준비

단기선교가 직접 선교지로 가는 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동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회에서의 홍보는 주보와 현수막 등이 좋고 선교지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게시하면 효과적이다. 후원과 동원을 위해서 선교바자회를 준비할 수 있는데, 바자회는 주일 오전예배 전후의 시간대가 적절하며, 이때에는 음식이나 음료, 아이스바 등을 준비한다. 중요한 것은 바자회가 지나치게 번거롭거나 팀원들을 지치도록 하면 안 된다.

/ 실행과정 /

단기선교지에서의 실행과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상에서부터 아침 식사까지의 아침시간, 그리고 저녁식사 전까지의 낮 시간, 그리고 저녁식사 이후 취침 전까지의 밤 시간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아침 시간 : 예배와 말씀묵상

선교지에서 아침시간은 보통 새벽 6시~9시까지를 말한다. 이 때 해야 할 일은 예배와 말씀묵상과 나눔 그리고 아침식사다. 아침에 기상하면 우선 세면을 하고 모여 찬양하며 우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말씀묵상(QT) 시간을 갖고 그

묵상을 나눈 뒤 아침식사를 한다.

팀리더는 이 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체크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말씀묵상을 꾸준히 해온 공동체는 그 순서에 따라 본문을 정하면 좋겠고, 단기선교여행 기간만을 위하여서는 요한일서가 팀웍과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으므로 선택하면 좋다(이 책에 참고자료로 실은 UMC [여정]의 묵상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2. 낮 시간 : 현지 선교사의 인도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무조건 선교사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좋다.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단기선교란 “장기선교사와 현지에 도움이 되는 단기선교”이다. 그러므로 단기선교를 하면서 현지일정 중 낮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교사에게 그 결정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단기선교팀도, 장기선교사도 좋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장기선교사를 가이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현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합시다. 저기로 갑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라고 겸손하게 물어보면서 현지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장기선교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단기선교팀이 장기선교사에게는 오히려 선교의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장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홍성욱 선교사는 한 기독교잡지에 단기선교팀의 잘못된 모습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기고했다.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동정으로 현금을 덥석덥석 쥐어주어 그간 눈물 나게 싸움의 목회를 하며 가르쳐 놓은 자존감을 순간에 변질시키고, 선교사 몰래 받은 돈이라 십일조 안 해도 모르겠지 하는 십일조 도둑을 만들어 놓고는, 그런 일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하면 ‘저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도와줘야지요’하며 자

기만족을 채운다. 그런 일이 생기면 가난한 빈민들은 한국인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돈이나 물질을 얻을 것이라는 로또 같은 기대와 의존성을 갖게 되고, 심지어 연기와 거짓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²

물론 때로는 열심히 준비해 간 내용들을 써먹지 못해 속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하루아침에 세계 선교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니다. 그저 며칠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단 번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잘못된 성취욕을 버려야 한다. 낮 시간은 고민하지 말고 현지 선교사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3. 밤 시간 : 중보기도, 감사의 보물찾기,

팀원 격려와 다음 날 사역준비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그 날 하루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다. 즉,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 그날 방문했던 선교지를 위해, 그날 있었던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리고 “감사의 보물찾기”를 하면 좋다. 이것은 사역 나눔을 하되 특별히 감사한 것, 은혜를 경험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다. 빽빽한 일정의 단기선교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괜히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오늘 하루 일정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를 나누는 것이다. 한, 두 명 감사를 나누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새 감사거리가 풍성해진다. 그러다 보면 불평거리, 어려움 등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주고 다음 날 있게 될 사역을 준비할 수 있다.

특별히 선교지의 마지막 밤에는 애찬식을 진행하길 추천한다. 1부는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식사, 쇼, 감사와 격려의 시간, 세족식 등을, 2부는 팀원들을 위한 시간으로 격려와 감사의 보물찾기 그리고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준비한다. 만약 현지에서 계속 현지식을 했다면, 이때에 식사는 한국식으로 해

도 좋다. 미리 준비해 간 고추장이나 김치, 라면 등으로 식사교제를 하면 분위기는 더욱 좋아진다.

/ 후속과정 ,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단기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후속과정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후속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고예배, 보고자료집 작성, 후원자 관리, 후속모임 등이다.

1. 보고예배

단기선교를 마치고 보고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돌아와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을 해준 남아있던 공동체에게는 단기선교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는 시간이며 참가자들에게는 단기선교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보고예배를 위해서는 우선 사진전을 준비하면 좋다. 조금 큰 사이즈로 주요한 사역 사진들을 뽑아 간단한 설명을 붙여 전시하고 영상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단 이때 준비되는 영상의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편집하고 참가자들 가운데 3~4명이 간증을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3~4명이 각각 다른 한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간증을 다른 내용으로 준비한다는 것과 반드시 간증은 써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길어지지 않는다. 현지사역으로 준비했던 것 중의 한 가지(예를 들어, SUM)를 전체가 한 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좋다.

2. 보고 자료집을 제작

단기선교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마지막 평가와 사진 등 단기선교의 모든 흔적과 자료가 담긴 보고자료집을 잘 남길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에게도 후원자들에게도 다음의 단기선교팀을 위해서도 이 자료집은 대단히 유용한 자료로 남

는다.

3. 후원자와의 관계형성

단기선교를 위해서 재정과 물품으로 후원을 해준 이들의 섬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진전에 사용한 사진 중에서 15~20장을 골라 미니앨범을 만들고 미니앨범과 보고자료집 그리고 감사편지를 함께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후원자는 분명 본인의 헌신에 대해 큰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후의 다른 단기선교에도 후원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

4. 후속모임

단기선교 이후에는 반드시 후속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공동체마다 상황에 맞게 모임을 가지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이면 적당하다. 이때는 단기선교를 통해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나누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이때 선교사를 위해 지속적인 연락과 작은 섬김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맷음 : 순풍의 뜻을 달고 기적을 가져오는 단기선교를 꿈꾼다 ,

준비되지 못한 단기선교는 역풍을 맞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단기선교는 엄청난 역량이 투자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한 단기선교는 실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도 단기선교를 통해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의 태도가 바뀐 사람이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동체의 경우에도 단기선교를 통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 역풍이 아닌 강력한 순풍의 뜻을 달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선교다.

1 | 한철호, “단기선교를 통해 장기적 열매 맺기”『기독교세계』, 2011년 7~8월호, 6.

2 | 홍성우, “선교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기독교세계』, 2011년 7~8월, 19.

사례



3

CHAPTER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 들어가는 말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우리 교회를 주변에서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목회 경험을 쌓은 후 도시로 와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수원역에서 함께 전도하기를 제안한 목사님이 계셨다. 그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전도하셨지만, 노방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반강제, 반 억지로 전도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수원역에서의 노방전도가 열방을 향한 역사적인 해외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도시목회는 정해진 예배시간에 설교만 하고, 필요시에 교인들 심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수원역 전도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지도 못했고, 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인들을 어떻게 전도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할지도 몰랐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짹지어 보내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팀을 모아 한 주간에 두 번씩 기도하고 노방전도와 축호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름이면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를 갖다.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가자는 건의에 따라 안면도 바닷가로 수련회를 갖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온 교인들 간에 시원하게 피서를 즐긴 것도 아니고, 잘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에 고생만 했다며 수련회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과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교회 수련회 갖다가 물놀이 사고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했으니, 수련회가 결코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간에 친밀감이 생기거나 서로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닌 별 의미가 없는 관행적인 여름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해 여름 삼복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이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날 때, 우리도 여행을 가자며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교회로 떠난 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되었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는 작은 시골 마을에 2인 1조로 짹지어진 30여 팀의 전도팀들이 돌아다니며 한 집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니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을 너무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신고 받고 온 경찰은 목사를 찾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조금만 조심해 달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2박 3일을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등 예배 그리고 성경공부도 했다. 전도 여행의 일과가 모두 끝나면 보통 새벽 1~2시가 되었지만, 누구 하나 피곤해하지 않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집을 떠나 온전히 예수만을 위해 살아 본 것이다.

전도 여행에서 교인들의 집중력은 매우 좋았다. 방해받을 일도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으며, 보람도 가득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도 굉장히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전도 여행 이후 우리는 12년간을 계속했다. 우리에겐 어떤 이론도 중요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분이 하시던 일이기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 마냥 좋았을 뿐이다.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고, 제자훈련 과정 중에 선교부분에서 10/40 창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미전도종족의 90%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에 우린 적잖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여름, 우리 교회의 해외 단기선교 초석을 놓았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임원 몇 명 첫 번째 해외 단기선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해외 선교는 첫 경험인지라 매우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전혀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웠던 것은 매년 여름이면 해오던 국내 전도 여행의 컨셉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단지 무대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꾸었을 뿐, 전 세계를 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좋았다. 그 이듬해 본격적인 해외단기선교를 위한 50여 명의 단기선교사가 모집되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하셨던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열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키르기스스탄 단기선교를 무사히 다녀왔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대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 듯, 생각도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선교가 어느 선교단체를 닮았고 그 방법은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일로 두려움과 망설임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함

께 단기선교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분들이 목사인 저를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들이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이런 말들 때문에 선교가 방해 된다는 것은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일들을 생각해보면 단기선교 현장을 가는 것보다도 출발하기 전까지 이런 방해와 싸워야 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같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은 우리의 단기선교가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여 선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외단기선교를 진행했고, 약 600여 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선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매년 죽음을 각오하고 단기선교사를 자청하고, 선교사로 사명을 다해 준 단기선교사님들께 감사한다.

1. 지금까지의 단기선교 방식

우리 교회가 2019년 실제 진행한 해외 단기선교 내용을 기술한다.



1) 선교조직 및 훈련 커리큘럼

(1) 2019년 선교 진행 조직 및 업무

김**	김** / 최**	김*	김** / 장**
• 인솔 책임 • 선교총괄 협력	• 선교비 관리(국내, 국외) • 선교비 안내 및 입금확인 • 선교비 지출업무 • 현지에서 행정관리	• 선교업무 협력 • 현장인솔 협력	• 선교 진행 스텝 • 선교 물품 정리
김**	노** / 장**	임** / 장**	0 **
• 선교훈련 • 진행팀장	• 선교훈련 안내문자 • 국내/현지 선교국 행정 • 선교 물품 관리 및 배부	• 선교 훈련 협력 • 선교 물품 관리 및 배부	• 국내 항공권관리 (여권 정리 / 현지서류)

(2) 선교 준비 일정

기간	주요진행사항	비고
4월 / 5월	1. 선교 오리엔테이션 : 4월 21일 15:30분 2. 선교 계약금 입금 : 4월 26일(금), 30만원 3. 항공권 티켓팅 점검 : 단체 티켓 2건 / OPEN 티켓 2건 4. 선교훈련 커리큘럼 정하기 : 5월 6일 5. 선교훈련 커리큘럼 발표 : 5월 13일 6. 키맨 및 중보자 정하기 : 5월 12일(주일) – 5월 19일(주일) 7. 선교훈련 커리큘럼 확정 : 5월 12일 (주일) 8. 선교 중도금 입금 점검 : 5월 17일(금), 60만 원 9. 선교훈련 1주 차 : 5월 24일 (금) – 선교 조 발표 – 선교 키국 언어집 프린트 배부	현재 63명
6월	1. 전도 여행 답사 : 6월 1일 2. 선교지 일정, 베이스캠프, 비용 등 현지 선교사와 조율 3. 선교 잔금 마감 : 6월 21일(금), 50만 원 4. 전도 여행 (교회, 일정)	
7월	1. 선교 현신예배 및 파송 예배 : 7월 21일(일) 오후 예배 2. 선교 최종 마무리점검 : 7월 26일(금) – 준비물 정리, 캐리어 입고, 표식 끈 3. 기도회준비 (검토사항) – 153 기도회 준비(사역자 8기 주관) 4. 사역비 환전	

(3) 2019년 선교훈련 커리큘럼

번호	날짜 및 주차	내용	강사
1	5월 24일 (1주차)	키국 설명 / 선교강의 / 조 발표	담임 목사
2	5월 31일 (2주차)	중앙 이슬람의 이해와 역사	인터서브
3	6월 7일 (3주차)	언어교육	선교사
4	6월 14일 (4주차)	복음강의	오** (순회선교)
5	6월 21일 (5주차)	선교한국 강의문의	선교한국
6	6월 28일 (6주차)	언어 강의	자체강의
7	7월 5일 (7주차)	조별 강의	자체 진행

번호	날짜 및 주차	내 용	강 사
8	7월 12일 (8주차)	영화관람(교회오빠) 및 양화진 선교사 묘역 방문	박** 선교사
9	7월 19일 (9주차)	조별 발표 및 언어시험, 심폐소생술(CPR)(박**권사)	담임 목사
10	7월 26일 (10주차)	기도회와 마지막 점검	담임 목사

(4) 선교훈련 스텝 주요 사역

① 선교훈련 준비

- 가. 명찰 제작 : 키맨, 선교사 (현재 126개)
- 나. 자리 배치용 삼각대 제작 : 5월 24일, 조 발표 때 사용예정
- 다. 최소 30분 전 도착하여서 준비
- 라. 문구류 준비

② 출석체크

각 조별 선교사 및 키맨 출석체크

③ 강의자료를 미리 받아 프린트해서 배부 준비

④ 강사 저녁 식사 준비

간단한 식사 및 도시락

⑤ 매 선교훈련 쉬는 시간 때 간식 준비

약 130인분 (언어교육 시 70인분 / 전도 여행 날은 제외)

⑥ 전도 여행 준비

가. 전도 여행지에서의 사역활동 (식사 등)

나. 함께 사전 답사

⑦ Weekly report

가. 매주 훈련 전 배부

나. 작성 후 조장이 일괄 제출

⑧ 출국 당일(7월 28일 주일) 점심 식사 및 간식 준비

본 훈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훈련일정

5월 24일(금) : 입학식 / 7월 26일(금) : 수료식

선교 일정 (항공사-아시아나항공)

출입국	날짜	일정	시간
출국일	7월 28일	인천 – 알마티	18:20 – 21:55
입국일	8월 2일(3일 도착)	알마티 – 인천	23:10 – 07:50+1

학사

- 1) 출결관리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 및 반영)
 - 출석 : 입실 시 출구에서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출석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시간, 출석시간 정확히 표시)
 - 결석 : 선교훈련 1시간 이상 지각 또는 조퇴 시, 3회 지각은 1회 결석
 - 텔락 : 선교훈련 2회 이상 결석 시, 6회 이상 지각 시(결석, 지각, 조퇴는 먼저 조장과 상의해야 하며,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만 출결 체크에 참작됩니다.)
- 2) 강의 전에 있는 예배시간은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아닌 정규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예배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늦지 않도록 합니다.

재정

본 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훈련생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비는 초청강사 강사료와 내부강사 교통비, 진행비 및 간식비, 교육 자료비 및

훈련원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선교회비 납부기한은 정하여진 날까지 완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정훈련 역시 선교훈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완납되지 않으시는 분은 선교훈련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 선교비용은 총 140만원입니다.
- 선교회비 1차 계약금(30만원) 안내 : 4월 26일 금요일
2차 중도금(60만원) 안내 : 5월 17일 금요일
3차 잔 금 (50만원) 안내 : 6월 21일 금요일
- 송금 안내 : 농협 352-0938-8* *0-23 김*화

훈련생 태도

- 1) 본 훈련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주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든 훈련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훈련이 시작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시간 계획의 최우선 순위를 선교 훈련에 두어야 합니다.
- 3) 훈련시간 이외에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 4) 훈련시간을 엄수하고 훈련 수칙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5) 훈련생들 상호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 6) 훈련 시 어려움이나 압박감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하며, 수시로 전임 Staff이나 선교국 팀에게 상담해 주시면 최

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조 편성이 이루어질 때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여권 안내

- 1) 여권은 5월 5일까지 제출 바랍니다.(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2) 2019년 3월 이전 만료이신 분은 갱신 및 신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일 기준 6개월 여유)
- 3) 처리가 어려우신 분은 선교팀에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 1) 선교 취소 시 계약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에 따른 항공사별 위약금 발생.
- 2) 언어시험을 칩니다. 준비 잘 해 주십시오.
이유 – 언어가 선교의 가장 큰 무기 선교 시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3) 키맨은 단기선교사와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키맨 및 중보기도자 선정은 차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4) 조장은 조에서 결정.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3-6)

(5) 선교 조 편성

“선교 조는 가족으로 꾸려진다. 가족 여행을 온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경계를 풀고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았다.”



〈2019년 선교 조〉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성장하여 선교하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엄*선	허*	김*희	오*준	석*용	정*화	김*상	양*모	권*순
최*미	김*정	김*아	조*미	오*옥	조*숙	김*화	강*미	정*호
김*담	김*슬	장*은	최*란	박*실	고*우	한*담	노*영	강*은
최*옥	장*환	신*륙	이*정	박*나	이*진		황*연	이*창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김*민	김*수	박*자	송*영	이*원	심*민	장*은	엄*식	
임*정	이*지	장*숙	길*화	김*란	박*아	강*현	박*예	
정*은	최*숙	강*혁	이*자	김*민	경*원	오*서	양*민	
김*혁	김*빈	김*혜	김*레	김*지	윤*은	이*원	백*경	

(6) 선교현장에서



현장에 도착하면 지역선교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이때 조별로 선교지역을 배정 받게 된다. 대체로 그 나라의 전 지역에 해당한다. 첫 번째 방문지역 이름과 다음 방문지역 그리고 마지막 날 모일 장소에 대하여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준다. 그리고 사역비를 받게 된다. 원근 거리에 따라 지원되는 사역비도 다르다. 사역비는 보통 교통비와 비상금(숙소 미 결정시 호텔비) 명목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남는 비용은 반드시 반납할 수 있도록 조 회계는 사용처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모든 조원은 직분에 상관없이 조장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예배를 드린다. 무조건 <막히면 예배하라>라는 표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누구도 아무것도, 그리고 문화와 언어도 지역도 모르는 곳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때 우리는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낮에는 길에서 전도하고 오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저녁은 그 가정에서 함께 먹고 저녁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 영접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함께 찍고 이름을 받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 친구가 이 가정을 찾아올 것이라고 그때 친구를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잠자리에서 조장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잔다. 복

음 전하는 장면을 사진찍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들이 경계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출발할 때 영접한 가정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접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다.

선교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집결 장소로 모이는 것이다. 담임목사인 나는 그곳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선교 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면 곳에서 그들이 나타나면 가슴이 떨리고 안전한 모임 장소에 오게 되면 마라나타를 외치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만났을 때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 무사 귀환한 성도들을 얼싸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이 현장이 마치 이산가족 찾기 현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뿐이다.

그리고 선교보고는 보통 12시간 정도를 하게 된다. 보고하고, 보고를 들으며 우리는 또 한 번 하나가 된다. 보고시간 내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기도



하기를 반복하면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선교현장에서 한발 한발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고 감사해서 자리를 뜨는 사람들 이 거의 없다. 우리 교회 표어대로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는 삶을 살자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는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의 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한 교회는 나라보다 더 무섭고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왜 예수님 이 선교하라고 하시는지도 뻣속

깊이 공감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그 현장이다. 매년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7) 그 시간 교회에서는

선교모집을 할 때 필수적인 조건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실 선교의 키맨을 섭외하는 것이다. 교회에는 이미 광고가 되어 있다. 특별히 가족들은 키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키맨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교현장에서 사역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선교신청할 때 키맨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한다. 실제 교회 안에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표시가 난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키맨으로 인기가 좋다. 그래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기가 없다. 이런 상황이어서 누가 나에게 키맨을 부탁하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선교현장으로 떠나는 그 시간부터 전도사나 간사의 인도로 하루에 4번씩 기도회를 한다. 그럼 교회 안에 키맨, 또 선교를 보낸 가족들,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를 한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현장이고 특히 이슬람 선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키맨의 기도는 정말 뜨겁다고 한다. 나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다. 늘 선교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현장에서 나는 키맨과 사역자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한다. 선교현장 상황과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하루하루 보낸다. 그럼 그 기도 제목으로 키맨과 중보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선교현장에서 응답 여부를 보낸다.

제일 많은 중보기도 부탁은 저녁 시간인데 어느 조가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길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 어느 조에 누가 설사를 한다는 것, 또 어느 조는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것,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조원들이 너무 의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키맨과 중보기도자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교 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히려 영혼의 열매를 안고 돌아오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다. 정말 키맨들과 중보기도자들에게 감사한다.

교회에 돌아와서 키맨과 중보기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이 한결같이 차라리 선교를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뜨겁고 덥고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들은 중보기도자들 앞에서 선교자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여름 단기선교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움직인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현장에 갈 수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한다. ‘올해는 선교 갈 수 있어요?’ 하면서 묻는 성도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2년째 못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년에 단기선교를 갈 수 있다면 가겠느냐는 질문을 하면 거의 성도들이 ‘당연히 가야지요’ 하고 대답을 한다. 그때가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미 10년째 단기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를 가시겠다고 하면 함께 훈련하고 우리 선교 조에 포함해서 함께 가서 단기선교를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나 누구나 할 수 있고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

정말 사도행전의 한 장 한 장이 우리의 선교현장 같고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 같아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글들이 실제가 되는 축복도 누리고 요한 계시록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가슴 뜨겁게 다가온다.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려면 선교를 해야만 한다.

(8) 단기선교 후 선교후원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4가정이 있다. 그 파송 선교사의 숫자는 우리 교회의 교세에 비해서 많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들은 성도들의 개인 후원이다. 개인 후원자들이 우리 교회 선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그 후원금으로 파송 선교사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선교를 다녀온 가정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선교사를 돋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참 좋아한다.

2. A 교회의 해외 단기선교 특징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의 해외 단기 선교방식을 뒤돌아보면 다음의 3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1) 선교 마인드의 밀접한 동질성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10)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힘을 쏟아내야 하는 교인들에게 분명한 비전으로 달려갈 길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힘을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이미 국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주님이 명령하신 비전을 함께 가질 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이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마태복음 28:18-20절의 주님의 대 사명에 목숨을 걸고 현장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정말 많았고 그때마다 삶과 믿음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2) 이슬람권 선교로의 전문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서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곳도, 결국은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중이다. 그중에서 우리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다. 실크로드 길목에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민족들이 이슬람이고, 복음이 전진하는데 최대 어려움도 이슬람이다.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세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다. 사실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이 선교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노출될지 모르고 또 추방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선교팀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과 주소를 선교사에게 넘겨서 1년 동안 심방하고 관리하게 하고 최종 목표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권 선교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3) 가족 단위 선교로의 현지성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편성을 가족 단위로 하고 3개월 동안 가족 단위로 조 훈련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선교 방법은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들의 하모니이다.

물질과 기도로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함께 하는 선교이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할 때는 다른 나라에 파송된 장기 선교사들도 함께 초청해서 교우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선교보고하면서 자신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도 한다.

/ 나오는 말 /

나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 잘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 편집을 도와주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데도 잘 대답을 못 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아냐? 하는 마음에서이다. 우리 교회 특징이 이렇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이다. 혹자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부터도 정말 허술하고 하나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알고 있는 이론도 많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교하려고 한발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단기선교를 또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교

회 안에서 묻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인데 할 수 있고, 그 현장에 무슨 일을 만드실지 기대가 된다고도 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알지도 못하면서 예전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고 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나와 우리 교회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현장에 가서 선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인 영혼구원을 위한 미션을 주제로 글을 쓰고,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세우기

/ 교회소개 /

본 교회는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로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세우기 위해 지난 16년 동안 애오개예수제자훈련(ADTS)를 실시했다. 이 제자훈련은 예수전도단(YWAM)에서 실시하는 DTS훈련을 기초로 한 제자훈련과정이다. 이 제자훈련의 과정 중 국외단기선교로 네팔, 몽골, C국, 필리핀, 일본 등 의 여러 나라들과 국내로는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여러 지역의 단기선교를 경험하였다. 본 교회 성도 400여명과 타교회성도 300여명 등 전체 700여명이 국외 및 국내 단기선교에 참여했다. 본 글에서는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국외, 국내단기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단기선교준비, 단기선교실시, 단기선교보고의 순서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단기선교준비

본 교회의 단기선교는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경에 실시한다. 2018년 국외단기선교는 7월 23일(월) ~ 8월 1일(수) 10일간 C국으로 다녀왔으며 국내단기선교는 7월 23일(월) ~ 7월 29일(주일)까지 북부, 남부, 강원지역으로 다녀

왔다. 단기선교의 준비 과정을 나누어 본다.

1) 단기선교의 목표정하기

단기선교를 준비함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기선교의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본 교회의 단기선교의 목표는

- (1)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배운다.
- (2) 준비기간 및 여행기간의 공동생활을 통해 사람 앞에 열린 삶과 하나님 앞의 겸손히 깨어진 삶을 배운다.
- (3) 주님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법을 배운다.
- (4)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갖고 선교에 참여하도록 돋는다.

2) 선교지 결정하기

매년 선교지는 국외와 국내선교지로 결정한다. 참여인원에 따라 국외 1~3개팀, 국내 2~5팀 정도이다. 국외 선교지는 우리교회 선교사들이 섬기는 나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선교하며 국내선교지는 기도하면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1) 국외선교지, 국내선교지 결정하기

- ① 국외선교지는 담임목사와 제자훈련 리더쉽이 선교지 선교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여 결정한다.(2018년 : C국팀-8명 / 보통 몽골, 네팔로 주로 선교를 다녀옴)
- ② 국내 선교지는 리더목사와 전체간사들이 간사기도회시간에 함께 기도하여 결정한다.(2018년 : 북부팀-6명, 남부팀-6명, 간사팀-6명)
- ③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때는 한해에 9~10팀정도 단기선교를 실시했다.(2008년: 국외-네팔, 몽골, 필리핀, 이집트 / 국내-영동A, 영동B, 영남, 호남, 중부-전체 9팀 69명 참여)

(2) 선교지에 함께 할 지도간사 결정하기

- ① 주로 간사들이 1명 정도(때에 따라 2명) 함께 단기선교에 동행한다.
- ② 간사는 먼저 훈련을 받은 성도로, 선교기간 내내 동행한다.
- ③ 단기선교에 함께할 간사결정을 위해 전체간사가 모여 기도하며 결정 한다.
- ④ 지도간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섬기며 도움을 요청할 때 돋는 역할을 한다. 너무 간섭하지 않는다.

(3) 학생들 선교지 결정하기

- ① 국외, 국내 선교지 결정을 위해 각자 기도로 준비하게 한다.(2주정도)
- ② 전체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국외, 국내 선교지를 결정한다.
- ③ 기도하며 결정한 학생은 기도한대로 선교지를 결정한다.
- ④ 스스로 기도하며 결정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리더목사 및 리더쉽에 위임 한다. 그러면 리더쉽에서 기도하며 결정한다.

2 팀별 준비모임 갖기

1) 준비모임 개요

- ① 준비과정 중 팀별 준비모임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한다.
- ② 선교팀별 모임은 보통 4월 중순부터 시작한다.(선교 3개월전)
- ③ 5월부터는 매주 2회씩 모임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한다.
- ④ 단기선교 출발 전까지 각 팀별로 보통 14회~17회이상 준비모임을 갖는다.
- ⑤ 준비모임시 매주 묵상나눔과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 ⑥ 묵상나눔은 매일 묵상하는 일정에 따라 묵상해 오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눈다.
- ⑦ 중보기도는 찬양, 회개, 성령임재간구, 대적, 기도제목나누기, 찬양, 주 기도문 순서로 1시간~1시간30분 정도 진행된다.

⑧ 중보기도시간에 결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기도하며 결정한다.

2) 준비모임시 주요내용

① 선교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기

- 자신이 섬길 선교지를 위해 한주정도 기도한다.
- 선교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묻고 기도한다.
-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마음 등을 느낀다.
- 실제 선교현장에 가면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②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기

-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
-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팀원들과 나눈다.
- 2018년 국내단기선교팀인 남부팀원들이 받은 말씀이다.

이 름	말 쓰
이 ○○ 자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박 ○○ 형제	시편 65편 1-2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강 ○○ 형제	마태복음 13장 31-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김 ○○ 자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름	말 씀
최 ○○ 자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박 ○○ 형제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③ 팀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제목 기도하기

- 팀모임에서 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나누고 공통의 팀말씀을 결정한다.
- 선교지역에 대하여 기도해야할 공통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한다.
- 각자에게 주신 기도제목을 나누고 공통적인 3~4가지 팀 기도제목을 결정한다.

2018년 국내단기선교 남부팀의 기도제목

- ▶ 팀원모두 모든 일정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 건케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 하소서
- ▶ 남부지역의 영혼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을 찬양하게 하소서
- ▶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④ 직임결정하기 (팀조직)

- 팀별모임에서 직임을 결정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한다.
- 직임은 리더, 헬퍼, 서기, 회계, 예배, 정탐, SUM, 시간관리, 작업, 섬김, 중보기도, 촬영 등으로 구성한다.
- 직임을 결정하기 전에 직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9년 선교 조〉

리더 (1)	팀을 대표하고 인솔하며 전체 일정을 진행한다.
헬퍼 (2)	리더와 팀원들의 교량역할을 하며 팀원들의 실제적 인솔을 담당한다.
서기 (1)	현장실습 준비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진행사항을 기록하며, 나눔과 보존의 자료를 만든다.
회계 (1)	팀의 재정을 관리하고 믿음으로 집행한다.
예배 (1)	현장실습 준비부터 종료시까지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한다.
정탐 (2)	팀원들이 행하고 거할 장소의 형편을 미리 살피고 준비한다.
SUM (1)	전도여행에 필요한 모든 SUM을 훈련시키고 인도한다. ※ SUM 이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 몸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둔 드라마, 춤, 찬양 등
시간관리 (1)	팀원들의 행동통일을 위해 진행시간을 알리고 독려한다.
작업 (1)	팀의 모든 물품관리와 사역, 숙박을 위한 시설대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섬김 (1)	팀원들의 식사와 건강 및 손님접대, 환자간호 등을 담당한다.
중보기도 (1+)	팀이 하나님의 호위와 인도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한다.
촬영(1)	팀의 현장실습중 필요한 상황을 촬영하고 보존하고 자료화한다.

* 직임이름 옆에 숫자는 인원(명)

직임결정시 주의사항

- ▶ 모든 직임은 겸임할 수 있다. 단, 리더는 예배 외 다른 직임을 겸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헬퍼리더는 남, 여 각1명으로 하며 예배는 리더가 겸임할 수 있다. 정탐은 남, 여 각1명으로 하며 중보기도는 1명이 상 가능하다.
- ▶ 국외나 국내선교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 팀 직임이 결정되면 교통편예약 (국외팀 비행기 및 배편예약)과 팀사진을 찍고, 팀T셔츠 제작한다. (보통 4~5벌 정도 색깔별로 주문제작)

⑤ 선교현장 리서치하기

- 선교할 나라, 지역에 대하여 개요, 역사, 종족, 지리,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언어, 선교현황 등을 나누어 조사한다.(조사시간:3주)
- 각자 조사한 내용을 3주후 다함께 모여 나눈다.(2~3주에 나누어 발표) 선교할 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게되고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
- 국외선교팀일 경우는 그 나라의 인사말 혹은 찬양을 1곡정도 외국어로 준비한다.

⑥ SUM 연습

- SUM 이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것으로 복음에 근거를 둔 드라마, 춤, 찬양 등을 의미한다.
- 우리교회에서는 주로 실시한 SUM 은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보좌 앞에 나아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상명령, 주께 가오니 외 여러 찬양들과 태권무 – 나의 영혼 싸울 때 등이 있다.(2018년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주께 가오니, GO, 하나님의 은혜, 태권무 – 나의영혼 싸울 때)
- 팀별 모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잘 준비되어야 만 보는 이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 찬양반주와 플레이어(카세트 및 핸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를 준비한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야외에서 음량이 작을 수 있기에 꼭 확인한다.
- 팀원 중 음향담당자를 정해 익숙하게 진행되도록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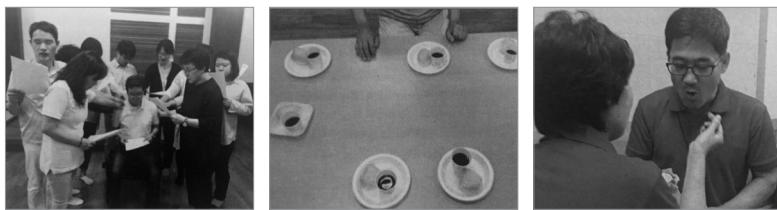


⑦ 팀별 M.T

- 이시간은 팀원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단기선교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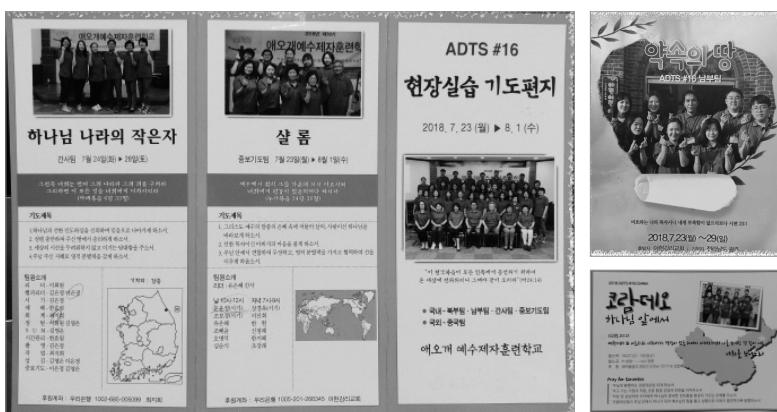
서로 잘 섬기기 위한 시간이다.

- 팀별로 1박 2일 일정으로 6월 초순경 M.T를 갖습니다.(2018년 6월 4-7일 중)
- 교회나 수양관, 또는 특별한 장소 및 개인의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 순서는 예배, 묵상나눔,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 자신의 연약함 등을 나눈다. 그리고 중보기도, SUM연습, 직임위임식, 애찬식 등을 갖는다.



⑧ 팀별 기도편지 제작

- 주변의 기도동역자들에게 기도부탁을 위해 기도편지를 제작한다.
- 학교전체의 기도편지와 각 팀의 기도편지를 각각 제작한다.
- 5월 중순경에 준비하여 6월 초에 제작 및 배부한다.
- 기도편지에는 팀사진, 단기선교 날짜, 팀말씀, 팀기도제목, 팀원소개(직임별), 기착지, 후원계좌(회계)를 기록한다.



⑨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방문

-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선교의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 한국에 와서 생명을 바쳐 선교하신 분들의 양화진묘원을 방문한다.
- 선교사묘원을 방문하기 전 1시간정도 한국선교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 교회에서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팀별로 선교사묘원을 방문한다.
- 선교사님들에 대한 설명은 양화진 묘원 해설사에게 미리 부탁하고 조를 나누어 이동하며 선교의 역사를 듣는다.
- 선교사님들의 선교열정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온다.



⑩ 물품구입 및 공동 짐싸기

- 팀별 모임시 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다.
- 출발 하루 전에는 팀별로 교회에 모여서 준비물을 확인하고 포장한다.
- 다음날 이른 시간 출발해야 하는 팀들은 교회서 숙박을 한다.
- 공동준비물은 전도지, 팀소개지, 회계장부, 드라마 유통 찬양 책자, 카세트녹음기, USB, 팀명단(특히 외국팀은 여권 내용을 별도 용지에 적고 사진 2매씩을 각자가 지참) 찬양 CD, 블루투스 스피커, 카메라, 지도책, 구급약, 우비, 랜턴, 감사카드, 비상약, 선물, 현금봉투, 알람시계, 돛자리, 선교지에 플로잉 할 필요한 물품 등
- 개인 준비물은 성경찬송, 여권(여권사본, 사진2매) 핸드북, 필기도구, 목상노트, 중보기도노트, 강의노트, 세면도구, 신분증, 그 외 침낭, 식사반찬(고추장 등) 팀티셔츠, 학교티셔츠, 우산, 우의, 썬그라스(국외팀만 필)

요에 따라), 썬크림, 휴지, 물티슈, 모자 등.

⑪ 단기선교 파송식

- 단기선교 출발하는 전주에 각 선교팀별로 파송한다.
우리교회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파송식을 갖는다.
- 팀별파송식의 순서는 입장, 인사(리더), 팀 및 팀원소개, SUM소개 및 SUM, 십자가수여, 파송기도, 축복송, 퇴장 순으로 한다.
- 파송시간에 선교팀을 위해 매일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팀도 파송 한다.

⑫ 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 선교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 선교팀을 구성할 때 중보기도팀도 함께 구성한다.(단기선교를 가지 않는 모든 간사들이 포함된다.)
- 섬기는 간사들이 중보기도팀을 통해 선교기간에 교회에서 매일 오전(10시 30분)과 저녁(7시)으로 나누어 돌아오는 날까지 중보기도를 한다.
- 중보기도 내용은 찬양, 회개, 성령임�재간구, 대적, 기도제목나누기, 찬양, 주기도문 순으로 약 1시간~1시간30분 정도 진행한다.
- 매일 리더목사가 선교팀 간사들과 선교지 상황을 소통하고 기도제목을 중보기도자들과 나누고 기도한다.
- 중보기도는 오전, 오후기도 담당자가 인도한다.
- 중보기도내용을 노트를 기록한다.
- 기도시간 후까지 안착하지 못한 선교팀들이 있으면 귀가하여 단체카톡 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안착할 때까지 함께 기도한다.
- 선교에서 돌아와서 경험을 나눌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

3. 단기선교 실시

1) 국외단기선교

(1) 개요

- ① 국외단기선교는 선교사님과 기도하고 상의하여 준비된 일정에 따른다.
- ② 일회적 선교가 아닌 지속적 선교사역의 방향으로 사역한다.(우리교회는 몽골, 네팔, C 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선교한다.)
- ③ 보통 7월 중순경부터 8월 초순까지 10일 동안 선교한다.(2018년 : 7월 23일(월) ~ 8월 1일(수) 10일간)
- ④ 개인별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다녀온다. 10일 동안이라 휴가신청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 ⑤ 매일의 일정은 아침묵상으로 시작하고 선교사님의 인도로 사역하고 중보기도로 일정을 마무리 한다. 비행기 일정상 공항에서 묵상하거나 중보기도를 하기도 한다.

(2) 출발예배

- ① 출발하기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여유있는 시간에 모인다.)
- ② 찬양, 말씀(담임목사, 리더목사), 합심기도를 한다.(전체시간 15분정도)
- ③ 팀원 및 배웅자들이 간단한 간식을 나눈다.(감자, 토스트, 계란, 김밥, 음료 등)
- ④ 출발 전 교회 마당에서 SUM을 하고 출발한다.
- ⑤ 리더목사 및 간사들이 출발지(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까지 교회승합 차 및 개인 승용차로 함께 환송한다.
- ⑥ 출발지(공항,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SUM과 기도를 하고 선교지로 출발한다.



(3) 단기선교지 주요사역

① C국

-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평신도)의 사역에 함께 한다.
- 주요이동경로 (2018년)

일자	이동경로
7월 23일 (월)	교회 – 인천공항 – 심양공항 – 동방농아인 교회 – 단동숙소
24일 (화)	단동숙소 – 낙원떡방 – 단동철교 – 신암록강대교 – 지안
25일 (수)	지안 – 압록강 땅밟기기도 –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 이도백화
26일 (목)	이도백화 – 백두산 땅밟기기도 – 연길
27일 (금)	연길 – 용정 윤동주생가 – 도문 광장 – 길림시
28일 (토)	길림 – 길림시한인교회 – 장춘 – 이00 선생님댁
29일 (주일)	장춘 – ○○기독교회예배 – 남호공원 – 숙소
30일 (월)	장춘 – 은미병원, 양로원 – 동문사대인문대학교 – 이00댁
31일 (화)	장춘 – 천사유치원 – 장춘한인회 – 숙소
32일 (수)	장춘 – 장춘공항 – 인천공항 – 교회

주요사역

- ▶ 단동철교, 신암록강대교 방문, 기도
- ▶ 장춘지역을 위 중보기도 (동북사대, 외국어대, 중동시장 등)
- ▶ 삼자교회 조선족 예배 참여 (특송, 교제 등)
- ▶ 백두산 등반, 통일염원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 ▶ 연변과학기술대 방문하여 교수님들과 교제
- ▶ 도문시 두만강기술전문학교 방문
- ▶ 길림시 한인교회 방문하여 예배와 기도
- ▶ 두만강 따라 도문시, 용정, 윤동주 생가 등 방문
- ▶ 선교사님이 섬기는 청년들과 교제사역
- ▶ 중국가정교회, 신학교 방문
- ▶ 양로원사역 등

② 네팔

- 본교회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네팔 현지인인 서산다 선교 사가 섬기는 카투만두 번장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한다.
- 주요이동경로 (2014년)

일자	이동경로
7월 14일 (월)	교회 – 인천공항 – 네팔카두공항 – 번장교회
15일 (화)	번장교회 – 팔릉교회 사역 – 사역자와 교제 및 노방전도
16일 (수)	팔릉교회 – 쿵굴레교회 사역 – 소망의 집
17일 (목)	소망의 집 – 달빛학교(여름성경학교)
18일 (금)	소망의집 – 카투만두 번장교회 – 노방전도와 마을잔치
19일 (토)	번장교회 – 예배, 노방전도, 고아원사역
20일 (일)	번장교회 – 한인교회주일예배 – 아가페고아원방문 – 초우타리호텔
21일 (월)	카투만두공항 – 인천공항 – 교회

주요사역

- ▶ 예배, 노방전도, 선교사, 한인교회교제, 교회잔치 등 사역
- ▶ 고아원봉사 사역(Heave Land, 예배, 섬김, 청소 등)
- ▶ 양로원사역(섬김, 예배, 간증 등)
- ▶ 난민촌, 사원견학(티벳난민촌, 퍼스퍼티, 부다나트, 칼리사원 외)
- ▶ 시내선교사역(카트만두광장, 박물관 등 견학)
- ▶ 포카라교회, 한인교회, 지진피해지 방문 위로 등 사역.



③ 몽골

- 본교회에서 파송한 울란바토르 주심교회(김○○선교사, 황○○선교사 부부, 현재은퇴)를 중심으로 사역한다.
- 주요 사역으로는 여름성경학교, 전교인 운동회 섬김 사역, 마을전도, 마을소독, 마을 청소 사역, 신학교방문, 아르바이헤르 순교지 방문, 울란바토르 YWAM 방문 현지 한국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다윗의 후손교회, 거룩한 여명 교회 방문 등 예배와 기도 등의 사역을 한다.



④ 필리핀

- 마닐라 깜텐공동체 예배, 가정방문, 축제, 세족식 등 사역
- 엘림교회는 사역, 유치원사역, 친양과 놀이 등 사역
- 팔라완 섬의 YWAM 베이스 방문, 예배 및 중보기도사역
- 타부리 뉴 테스타먼트 교회 방문, 예배 및 중보기도사역
- 뉴테스타먼트 현지교회지도자 가정방문
- 뉴테스타먼트 교회예배사역
- 타벨톡 산지 부족마을 방문, 중보기도사역
- 마부다스 어리닝 저녁예배 참석 축복
- 아이사 가정방문
- 란상YWAM 베이스 방문, 예배 및 중보기도사역

⑤ 일본

- 오사카성방문(기독교탄압역사를 듣고 일본에 복음화를 위한 기도)
- 오사카예수전도단 방문(일본에 복음을 전하려는 현신자들 격려)

- 오사카북부교회, 고베시립외국인 묘지(스크랜튼선교사 묘지), 이진칸 거리(스크랜튼선교사 사택) 롯코산전망대 관서학원대학신학부 방문
-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교토라쿠사이교회 방문 교제
- 나라시청 전망대 기도, 나라 그리스도교회 방문 교제

이 외에도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선교사역들을 진행했지만 지면상 위의 내용들만 기록하였다.

2) 국내단기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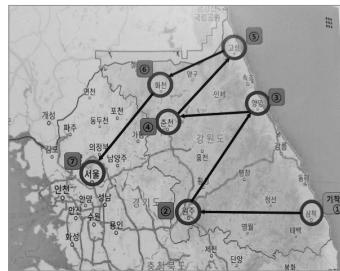
(1) 국내단기선교 개요

- ① 국내단기선교는 강원도, 충청도, 북부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도, 울릉도 등 많은 국내 지역에서 선교한다.
- ② 매년마다 보통 3~5팀이 국내 단기선교를 한다.
- ③ 국내단기선교 일정은 7월 중순 ~ 8월 초순 중으로 7일 동안 진행된다.
(2018년은 7월 23일(월) ~ 29일(주일)까지 7일간)
- ④ 2018년은 북부팀, 남부팀, 간사팀(강원도중심) 3팀이다.
- ⑤ 국내 단기선교는 국외단기선교와는 달리 미리 결정된 장소가 없다. 처음 도착할 기착지만 결정하여 출발하고 그곳에서부터는 어디로 가야할지 기도하면서 이동한다.
- ⑥ 팀원들이 함께 중보기도하여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등을 종합하여 정팀의 직임을 맡은자가 중보기도의 내용에 합한 곳이 있는지를 정탐한다.
- ⑦ 정팀이 돌아와 팀원들이 함께 이동하여 교회목사님 등 거처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동의해 주시면 그 교회에 거하게 된다. 그러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절당하게 되면 다시 기도하고 정탐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 ⑧ 허락한 장소에 거하게 되면 놀랍게도 중보기도하며 나누었던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⑨ 한곳에 오랫동안 거처하지 않고 이동한다.

⑩ 지도로 보는 이동경로 (2018년 북부 지역을 선교한 팀이 기도하며 실제로 이동한 경로)

⑪ 세부이동경로



일자	이동경로
7월 23일 (월)	교회 – 서울역 – 강릉역 – 삼척터미널 – 삼척중앙교회
24일 (화)	삼척터미널 – 속초터미널 – 강릉터미널 – 원주터미널 – 삼천교회
25일 (수)	원주터미널 – 양양터미널 – 동상교회 – 상운수표교회
26일 (목)	양양터미널 – 속초터미널 – 춘천터미널 – 한영교회, 시민교회, 온의교회정탐 – 중부교회
27일 (금)	춘천터미널 – 간성터미널 – 가진리경로당 – 거진교회, 대진교회, 초도교회, 명파교회정탐 – 화진포교회
28일 (토)	화진포교회 – 통일전망대 – 간성터미널 – 화천 – 화천중앙교회
29일 (주일)	화천터미널 – 서울동서울터미널 – 교회

(2) 단기선교팀 주요사역

① 매일 아침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고, 중보기도로 하루사역을 마무리 한다.

② 다니는 곳마다 SUM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한다.

③ 어디로 가야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한다.

④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곳을 찾아 동의를 구하고 머물게 된다.

⑤ 머무는 교회에 예배, 특송, SUM, 간증, 전도, 교회시설정비, 청소, 교회비품구입, 주변환경 정리, 목사님 성도님들과 교제 및 위로 등의 사역을 한다. 특히, 가는 교회마다 기도하여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도록 헌금한다.(2018년: 청소기, 노트북, 복합기, 성경책, 모자, 선풍기, 주전자, 학용품세트, 고무장갑, 빗자루, 전기밥솥, 빔프로젝트, 스크린, 건축현금 등)

⑥ 마지막 날 저녁에는 애찬식을 갖는다. 단기선교기간에 관계훈련들을 정리하며 서로 오해 혹은 불편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⑦ 본교회로 돌아와 간단한 보고의 시간을 갖고 귀가한다.



3. 단기선교보고

1) 단기선교팀 환영

① 리더목사를 비롯하여 간사들이 돌아오는 단기선교팀들을 마중 나가 환영한다.(국외팀: 공항, 국내팀: 터미널, 기차역 등으로 마중/가족도 동참한다.)

② 함께 교회로 돌아와 간단한 보고의 시간을 갖는다.

③ 환영찬양, 전체일정 간단보고(리더), SUM, 전체 합심기도(항아리기도), 마무리기도의 순서로 진행한다.(30분 이내)

④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⑤ 보관했던 핸드폰, 지갑, 키드 등을 돌려받고 귀가한다.

2) 단기선교사역 정리(책자)

① 팀별로 단기선교보고서(책자), 선교사진, 영상, 간증 등을 정리한다.

② 간증문은 참가자 전체가 제출하여 책자에 기록한다.

③ 선교보고서(책자) 2부는 교회로 제출하여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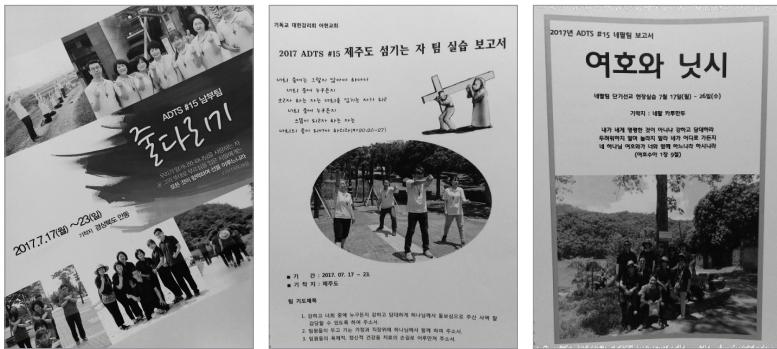
④ 선교지 사진은 팀별로 정리하여 교회 로비에 2주정도 전시한다.

⑤ 선교후원자들에 대하여 감사편지와 선물을 전달한다.

〈ADTS 16기 단기선교 준비일정〉

2018. 4. 21(토)

회	일 시	준 비 내 용	비 고
1	4월 21일 (토)	전체첫모임 / 리더(팀장), 서기, SUM장 선정 / 현장실습 orientation (메뉴얼) 직임별 지원 나눔 (나눔의시간시 알림-리더) * 국외:교통편기도	
2	4월 28일 (토)	직임결정 / 현장실습지에 주시는 마음 특상 * 국외:기획지기도 •국외팀 항공편 예약 진행 •차기모임까지 전체 직임결정 •SUM장보임, 연습시작	
3	5월 5일 (토)	팀명, 팀말씀 결정 / 전체 직임별 교육 (직임별 지도간사) •직임, 팀명, 팀말씀 확정 →국외팀은 현지선교사 협조 별도 진행 •국외팀 여권사본 •학교 T셔츠색상 결정(간사중보기도로 결정 / 서기간사가 주문) 제작주문(5월25일~금요일까지 제작완료-나눔)	
4	5월 12일 (토)	예산결정 (전체예산, 개인별 부담회비 결정)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한주간 각자 기도 - 다음 모임시 발표) 현장실습지 리서치 분배 (현장실습지 개요, 지리, 종족,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종교, 선교 등)	
5	5월 19일 (토)	팀 기도제목결정 (3-4가지로 요약) /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발표 국내 팀 첫 기학지 결정 (교통편, 장소, 시간) •국외팀 일정 협의 •학교 기도편지 자료 수집 및 제작(6월 9일/토) •팀 기도편지 제작(6월 9일/토) •핸드북 준비(6월 16일/토)	
6	5월 26일 (토)	전체 및 팀별 사진촬영(학교T작용) / 전체 SUM 연습(토) 팀T 수량, 색상 결정, 제작 / 예산내역작성(리더십과 회계) / 주중모임시간 결정 •팀 기도편지(6월9일,토 배부) 핸드북 준비 •학교 기도편지 제작(6월9일,토 배부)	
7	5월 29일 (화)	주중모임! / 예배, 목상나눔, 중보기도 현장실습지 리서치발표① •목표 선정, 사역지침 결정, SUM연습, 팀 기도편지제작, 팀 핸드북제작	
8	6월 2일 (토)	팀별 MT 계획 (장소 및 일자, 1박2일 권장) / 예산결정	학교 시간
9	6월 4일-7일 (월-목)	팀별 MT 실시주간 - 팀T 착용 <u>MT진행</u> : 예배, 목상나눔, 현장실습 지침나눔, / QQ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 우려 자신의 연약한 점 등) / 중보기도 / SUM연습 / 직임위임식 / 격려와 축복의 시간 / 애찬식	
10	6월 9일 (토)	기도편지 배부 (학교 / 팀) •SUM연습 •공동 물품결정 •기도편지를 통해 중보기도와 재정지원 요청	



3) 단기선교사역 보고

- ① 영상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단기선교 사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② 보통 선교에서 돌아온 다음 주에 보고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교회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제자훈련시간에 보고하며, 주일 오후 제자훈련수료 예배시 전교인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③ 사역보고 순서는 팀원소개, 일정별 사역보고(영상, 사진), 간증(2명), SUM 순서로 진행하며 팀당 50분정도로 보고하며 선교기간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나눈다.
- ④ 중보기도팀도 매일 중보기도사역에 대하여 나눈다.
- ⑤ 선교팀, 간사들 전체가 축복하며 찬양하고 마친다.
- ⑥ 이후 선교팀별로 자발적으로 후속모임을 갖고 교제 및 선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

참고자료 1 단기선교준비일정표 (2018년)

참고자료 2 M.T 시 직임위임식, 애찬식 순서

참고자료 3 단기선교 주요 생활규칙

11	6월 12일 (화)	주증모임2 / 예배, 목상나눔, 중보기도, SUM연습, 팀 핸드복 제작 현장실습리서치발표②	
12	6월 16일 (토)	전체 진행 사항 점검 / 재정점검 / SUM연습 / 팀 핸드복 제작 완료 ◆기도편지를 통해 중보기도와 재정지원 요청 ◆재정점검	
13	6월 19일 (화)	주증모임3 / 예배, 목상나눔, 중보기도, SUM연습 현장실습리서치발표③	
14	6월 23일 (토)	전체 진행 사항 점검 / 재정 점검 / SUM연습 ◆재정마감	
15	6월 26일 (화)	주증모임4 / 예배, 목상나눔, 중보기도, SUM연습	
16	6월 30일 (토)	전체 진행 사항 점검 / 재정 검검 / SUM연습	
17	7월 3일 (화)	주증모임5 / 예배, 목상나눔, 중보기도, SUM연습	
18	7월 7일 (토)	전체 진행 사항 점검 / 재정 검검 / SUM연습	
19	7월 10일 (화)	주증모임6 / 예배, 목상나눔, 중보기도, 현장실습지기도, SUM연습 개인 및 공동 물품 점검, 재정 최종마감 및 보고, 팀 발표회 준비	
20	7월 13일 (금)	변화영상(학교) / 팀별 발표준비 – SUM연습, 재정점검	
21	7월 14일 (토)	양화진방문 / 팀별 SUM 평가 / 팀별 발표준비 – 재정점검	
22	7월 20일~21일 (금,토)	팀별 발표회 및 파송식 / 제3기 애찬식	학교 시간
23	7월 22일 (주일)	공동 짐 싸기	
	7월 23일 (월)	현장실습 출발 (국외: 8월 1일, 수까지) / (국내: 7월 29일, 주일까지)	
24	7월 29일 (주일)	국내 팀(북부, 남부) 복귀	
	8월 1일 (수)	국외 팀(중국) 복귀	
▪ 현장실습보고 : 8월 10일(금) - 8월 11일 (토) ▪			

1. 위임의 말

- 1) 팀원들 전원이 둘러 선 가운데 순번자를 원 안(의자, 방석 등)에 앉게 한 후, 팀원들이 순번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안수가 아니고 사랑의 터치) 팀원전체가 아래 문구를 합독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팀원들의 마음을 모아
○○○(형제/자매)를 ○○팀의 ○○직임자로 위임합니다”

- 2) 직임이 여러 가지일 경우는 한 번에 위임한다.
3) 순서는 리더, 헬퍼, 서기, 회계, 예배, 정탐, SUM, 시간관리, 작업, 섬김, 중보기도, 촬영 순으로 위임한다.

2. 다짐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팀원들의 마음을 따라
○○팀의 ○○직임을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팀원들의 합독이 끝나면 순번자가 아래 문구로 화답한다.

3. 직임자 위해 합심기도

- 1) 다짐의 말을 마치면 그 직임자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한다.
2) 리더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리더 위임시에는 헬퍼 연장자가 마무리 기도한다.

4. 찬양 / 마무리기도

- 1) 이상과 같은 위임과 다짐이 마지막 직임자까지 마쳐지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한 후 리더가 기도하고 마친다.

- 준비물 : 통빵1개, 통빵을 놓을수 있는 접시, 포도쥬스, 포도쥬스를 담을 대접, 물티슈
- 자 리 : 물티슈 등으로 손을 정결히 한 후 준비된 애찬(빵과 대접에 담은 쥬스)을 중심으로 원을 형성하며 둘러선다.
- 진 행 : 리더가 진행한다.(형편상 위임할 수 있다)

1. 찬양 (찬밀감을 내용으로 하는 1~2곡 / 사랑의 나눔있는 곳에 등)

2. 말씀나눔 (리더 혹은 맡은이 / 간단히 5분이내)

- 1) 권장 성경구절 :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 벨립보서 1장 3~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등

3. 애찬나눔

- 1) 동시다발적으로 빵을 떼어 포도쥬스를 찍어 각 팀원의 입에 넣어준다. 그리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건넨다. 약수로 인사하며, 동성인 경우만 허그로 인사한다.
- 2) 한사람과 2분 정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 한다.
- 3) 팀원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교제하도록 인도한다.

4. 찬양 (다같이 손을 잡고 원형으로 서서 찬양한다)

- 1) 마치기 전 팀원 중에 전체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한다.

5. 마무리기도

- 1) 손을 잡은 상태로 리더 혹은 위임받은 팀원이 마치는 기도를 한다.

1.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1)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는 말을 한다.
- 2)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모든 재정은 한 전대로 묶는다.

- 1) 과다지출을 삼가고 절약과 검소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 2) 신용카드, 핸드폰 지참을 금지한다.
- 3) 재정관리는 회계가, 지출결의는 리더십에서 한다.
- 4) 예산에 없는 것을 지출할 경우에는 팀 리더와 반드시 상의 한 후 지출한다.

3. 이성교제를 금지한다.

- 1)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혹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

4.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 1) 육체를 쳐서 복종, 개인 경건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 2) 영적인 궁핍이 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의, 식, 주에 대해 거치는 것이 되면 안된다.

- 1) 선교현장의 음식문화, 주거문화를 존중한다.
- 2) 생활공간은 정리정돈, 청결, 순례자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6. 사역시의 복장은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 1) 복장을 통해서 순결한 이미지를 주며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 2) 편안한 복장, 마음 뿐 아니라 복장도 깨끗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
- 3) 반바지나 짧은 스커트, 달라붙는 옷은 금지한다.
귀걸이나 기타 장신구, 시계 등은 빛을 반사시켜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므로 주의하고 머리띠는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머리는 뒤로 묶거나 짧게 잘라서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한다.
- 4) 위의 내용 외에 시선을 주께로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사전 방지 한다.

7. 비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 1) 팀 전체의 일치가 깨지지 않도록 먼저 나 자신부터 살핀다.
- 2) 리더 혹은 선교사님들의 권위를 거역하지 말고 교만과 열등의식을 내려놓는다.

8. 교회사역시 겸손하게 협의한다.

- 1) 섬기는 교회에 우선권이 있다. 우리의 것만 절대화 하지 말고 방문교회의 제안을 항상 들어주는 자세로 반응해야 한다.

9. 떠날 때에는 마무리를 잘한다.

- 1)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 2) 감사카드, 선물 등을 준비하여 목사님외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경험 후



CHAPTER
4

단기선교 : 두 가지 경험

K 선교사

선교사로서 단기팀의 선교지 방문은 진짜로 기다려진다. 단기팀은 유무형의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찾아온다. 몽골은 기후 상 단기팀이 주로 7~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한국에서 온 단기팀들로 교회들마다 북적북적 거린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1년에 두 달 한국에서 찾아오는 단기팀들로 몽골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 동안 단기팀들과 동역하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몽골을 다녀간 후에도 오랫동안 생각나게 하는 단기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 A 교회 이야기 /

이 A 교회 단기팀은 제가 개척한 교회(어린양교회)에 초창기부터 15년 동안 매년 8월 초에 몽골을 방문했다. 이들이 방문하는 목적은 여름성경학교를 해주기 위해서이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할 것이다.

6월말이나 7월초에 A 교회에서 성경학교 관련 자료들을 몽골에 보내준다. 보내준 교재와 CD(노래 영상)를 우리교회에서 번역하여, 찬양팀과 울동팀이 훈련을 한다. 그리고 보내준 교재 또한 번역을 하고, 그룹별 활동을 위해서는 통역팀과 돋는 이들을 배정해서 단기팀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마친다.

A 교회는 7월 초부터 자기 교회를 위해서 교사들이 모여서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어린양교회도 같은 교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7월 내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A 교회는 자기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마음으로 몽골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 교회의 교사들과 함께 몽골 어린이들을 섬기게 된다. 가사는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울동과 곡조로 두 나라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광경이 참 아름답다. 찬양과 울동은 선교지 교회 교사들이 주도해서 인도하고, 단기팀들은 함께 하면서 돋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익힌 새로운 성경학교 찬양과 울동은 1년 동안 어린이 교회학교에 새로운 힘과 감동을 주고, 마음을 공유하는 하나의 패스워드처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학교 단기팀을 매년 기다려 오고 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섬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준 A교회 단기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교회가 많이 성장하였고, 지도력이 많이 자라났다. 이후 어린양교회는 성경학교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시골교회들에 가서 성경학교로 섬기는 일을 매년 하고 있다.

/ B 교회 이야기 ,

10여 년 전쯤에 몽골을 방문한 한 단기팀이 있었다. 이 B 교회 단기팀은 몽골 단기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하였다. 이 단기팀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두 가지 사역은 반드시 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나는 교회가 있는 근처의 산에 올라 철야기도회를 하고 싶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새벽 기도 후에 아침 7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고, 선교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한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이것은 단기팀과 조금은 조정해야 할 사항들이었다. 때로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단기팀의 사역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

몽골은 기본적으로 해발 1,500m의 고지이다. 울란바토르 주변 산에 올라가면 거의 정상 가까운 곳까지 주로 가난한 이들이 달동네를 이루어 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산 정상에는 우리나라 서낭당 같은 ‘어워’(돌무더기)가 있다. 이 돌무더기를 몽골인들은 신성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밤에 외국인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다가는 주민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고, 문화적 속성상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공권력에 의해서 잡혀가서 단기선교 자체가 조기 중단되고, 거기에 가담한 선교사는 추방의 위험과 교회의 정상적인 사역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회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선교사가 용기가 없고,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까지 책임이 미칠 수도 있었기에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 요청사항인 아침 7시 전도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만류했는데, 그들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 새벽 5시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끝까지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시간을 10시쯤 하자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교회 청년들과 단기팀들이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여름이지만 아침 7시는 몽골의 동네는 아직 고요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는 식전 시간이다.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집집마다 기르고 있는 개들이었다. 고요한 아침을 깨는 이방인들에게 무섭게 짖으면서 달려들었으니, 주인이 아직 기상전이라서 이 개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은 한두 시간 동네 곳곳을 다니던 중에 몽골교회 청년 하나가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잠도 부족하고, 아침의 뜨거운 태양과 또한 아마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성공한 경험이나 이론을 선교지에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아주 단순한 적용일 수 있겠지만, 난 사실 이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때 쓰러진 청년이 아마 ‘자기’였을 것이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저녁 늦게까지 단기팀과 함께 사역을 하고, 다음날 일찍 준비하고 나선 걸음이었는데…

/ 결론 /

단기팀과 오랜 시간동안 동역하면서 현지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단기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주고 배려해 주는 단기팀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은혜로운 결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선교지에 단기팀을 보내고 섬기시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단기선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

(종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저는 서울남연회 K 지방 J 교회를 섬기고 있는 ○ 장로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케냐에서 유엔소속으로 근무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사건사고 영사로 근무하였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법무영사로 근무하고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 성령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파송해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선교현장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교를 단기선교, 장기선교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단기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팀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는 모슬렘권 국가도 있지만, 관광도시로 유명한 곳에서도 많은 단기선교팀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해외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진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슬렘 국가와 북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를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포스트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여 장·단기선교가 중단 또는 위축되었지만 이때에 우리가 성령충만을 구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 갑절의 능력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해왔던 단기선교에 대하여 점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더 나은 선교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1. 한국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왜, 무엇을 위해 단기선교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교라는 미명아래 땅 밟기, 여행, 견학 등의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돋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갖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교지를 방문했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복음전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

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3. 저는 모슬렘 국가인 소말리아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12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함부로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행동이나 언행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가난하고 문화적 수준이 낮다고 느껴져도,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4:12)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였고, (로마서 12:16)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내전 중인 소말리아에서 사역하실 때 복장도 모슬렘의 복장 즉 차도르를 쓰고 다니시고, 음식도 그들의 문화에 따라 맨손으로 그냥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삶의 수준을 맞추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유난히 추방을 많이 당하셨는데, 선교사, 교회, 성경, 목사, 집사 등 기독교 용어만 발견이 되어도 추적하여 추방을 하는데, 단기선교팀들이 가지고 온 봉투나 선물, 또는 우편물에 ○○교회 ○○○ 목사라고 적어놓은 것이 발견되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서 추방당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다른 여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피난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역을 하시는데 피난민 어린이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교는 관계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4.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는 비교적 관광도시입니다. 최근 블라디보스톡에도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비자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단기 방문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종교비자 없이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기선교팀들이 준비해온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광장과 거리에서 1회성 공연을 하고,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선교를 하며 입지를 다져온 선교사님들이나 한국교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단기 선교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5.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주님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단기선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문화, 언어를 갖고 있는 국내에서도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선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선교를 통해 무엇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만족을 위한 한 행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잘 따르고, 선교사님들이 현

지에서 사역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협력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팀이 다녀간 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생각해서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현지사역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실제적인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선교라는 용어는 선교를 가시는 분들을 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20년을 선교해도 열매 맺기 어려운 선교현장에 단 며칠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파송하는 단기 선교팀은 개별적인 활동보다 선교사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 사역에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되고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섬김의 자리에서 행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려 여러 열악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도 특별한 믿음으로 헌신한 분들이지만, 낯설고 외로운 타국에서 만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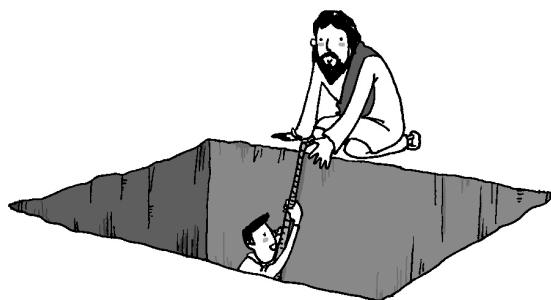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뒤돌아보면 좀 더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위해 선교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났지만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선교사역을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는 마음

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 누군가의 관심과 손길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선교이건 장기선교이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선교현장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쓰임의 시간

윤 ○ ○

/ 철없이 떠난 첫 단기선교여행 ,

내가 처음 단기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 시절의 여름쯤이었다. 당시 모(母)교회에서 필리핀에 파송한 선교사 가족을 방문하고 현지 부족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짧은 일정의 여행이었다. 의료봉사와 물품전달 등을 명목으로 의사 장로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회 청년들이 합류한 단기선교였는데, 당시에는 해외여행이라는 의미가 더 커던지라 나를 비롯한 청년들은 모종의 들뜬 마음과 호기심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던 기억이 있다. 부끄럽게도 선교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필리핀에 도착한 우리들은 바쁜 사역 시간을 쪼개어 마중 나온 선교사님의 환대를 받으며 며칠에 걸쳐 필리핀의 역사적 장소와 선교 현장 등을 방문했다.

단기선교단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고원의 화산지대에 거주하는 필리핀 원주민 부족을 방문하여 간단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협하고 비탈진 진흙탕 길을 따라 지프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필리핀 원주민들의 삶

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한 부족마을이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낯선 이국의 사람들을 부족민들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준비해간 생필품이며 학용품 등에 고마움을 표했다. 어둑하고 투박한 학교 건물 안에서는 간단한 예방 접종과 의료 처치 등이 진행되었고 단기 선교단은 서툰 손길로 분주히 움직이며 의료봉사를 도왔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부족마을에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현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반으로 쪼갠 대나무 안에 흔히 안남미(安南米)라고 불리는 인디카 쌀(Indica rice)을 넣고 쪄서 고기와 함께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었는데, 당시 새침하고 비위 약한 젊은 여성이었던 나는 덥고 습한 날씨에 위생도 열악한 부족마을에서 차려진 음식들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결국 선교사님이 비상식으로 준비한 김밥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웠다. 부족민들의 정성 어린 환대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이때의 경험은 당시의 단기선교를 떠올릴 때마다 거의 유일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되었다. 선교사역에 대한 신앙적 고민 없이 그저 수동적이고 얄팍한 마음으로 단기선교에 참가했던 나는 결국 타성에 젖은 여행객 이자 이방인, 그 이상 되지 못했던 것이다. 철이 없고 사랑이 부족했던 시절의 부끄러운 단기선교체험이었다.

/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

청년 시절의 첫 단기선교여행 이후 나는 아이를 키우며 대학원을 마치고 강의를 병행하느라 ‘선교’의 의무는 검소한 현금봉투로 대신하며 평범하고 분주한 교인으로 살아갔다. 유독 집안에 목회자가 많고 가까운 친지들 중에 해외 선교사도 적지 않아서 가끔 모종의 부채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선교활동’이란 믿음이 출중하고 귀한 시간과 열정을 바칠 준비가 된 특별한 이들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40대 중반쯤 인생에 큰 풍파가 몰아쳐왔고 이리저리 절망의 물결에 휩쓸려가던 때, 어떤 징조

처럼 몽골에 해외봉사활동을 나갈 기회가 주어졌다. 대학생들을 인솔하여 몽골의 한 대학을 방문하고 한국어교육과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단기봉사 프로그램이었다. 해외봉사에 대한 특별한 경험도, 인연도 없는 터였는데 우연히 일 관계로 방문했던 민간단체에서 몽골 대학의 한국어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물색 중이었고,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내가 부지불식간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7월 중순부터 3주간 진행될 계절학기와 봉사활동을 위해 나는 몇 개월 전부터, 계절학기 캠프를 담당하고 계신 한국어학과 교수님(한국분이셨다)과 이메일로 소통하며 차근차근 수업일정을 짜나갔다. 해외봉사라는 명목의 단체 방문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신지라 교수님은 면밀하게 수업과 활동에 대한 점검 사항들을 짚어주셨다. 설부른 호의와 낭만적 감상에 기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나가기를 원하셨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일 관계로 이메일을 주고받자니 딱딱한 문장들이 오고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보낸 한 문장이 그 분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잘 조정되리라 믿습니다.”라는 글귀였다.

알고 보니 그 분은 은퇴 후 사회사업과 한국어교육 등 선교활동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고 10년 넘게 몽골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교활동을 하고 계신 장기사역자였다. 은퇴 후 평안한 노후를 마다하고 홀로 열악한 환경의 타국에 나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 분의 마음에는 몇 주 간 단기봉사라고 해외여행 오듯 다녀간 한국 학생들로 인해 행여나 몽골 학생들의 일상이 동요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연민이 있으셨던 것이다. 철없이 설레고 우쭐한 기분만으로 해외봉사를 오곤 하는 한국 학생들과 봉사단체에 은연중 불편한 심기가 있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실무자 간의 접촉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질성과 연대감을 확인하는 작은 키워드가 된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라는 제목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답메일을 보내셨다. “선생

님의 메일 내용에 반가운 글귀가 있어서 부탁드려도 되겠다 싶네요. ‘합력하여 선을…’ 참 반가운 문장입니다. 바트숨베르에 머무는 동안 주일을 보냅니다. 거기서 한·몽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한 청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가슴이 뛩니다.” 메일을 받는 순간 나는 내가 왜 몽골에 가는지 깨달았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몽골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문화교류사업과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이런 것은 어찌면 표면적인 이유였다. 한국과 몽골의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누리며, 국가와 민족,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를 환대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한 신실한 사역자의 기도가, 나의 부족한 재능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끈 것은 아닐까.

/ 세밀하게 살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

그날 이후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시간은 계절학기와 봉사활동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몽골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하나씩 배워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소소한 도움의 손길을 함께 기뻐하며, 하루하루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열악한 예산에 몽골 학생들이 사용할 한국어 교재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 복사물로 충당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섭기는 산성교회의 목사님께서 선뜻 학생들 교재 구입비로 쓰라며 ‘선교헌금’을 내어주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길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중순 몽골의 울란바토르로, 계절학기가 열리는 바트숨베르 농장으로 이동하며 우리는 3주간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전기도 전화도 수도시설도 없이 오로지 자연의 섭리에만 의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농장에서의 일상은 문명의 이기가 아닌, 문명의 무상함을 찬미하게 할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운 경험이었다. 열흘간 하루 종일 진행된 한국어 계절학기 수업은 자못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많은 분량의 과제를 열심히 소화하는 학생들에 뒤질세라 나 또한 밤늦도록 과제를 꼼꼼히 체크하며 학생들을 독려했다. 개성 가득한 40여 명의 몽골 학생들과 2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풋풋한 우정을 쌓아가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소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주역이 되고 주님의 선한 종들로 활약할 한·몽 젊은이들의 앞날을 남몰래 그려보기도 했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우리는 계절학기가 열리는 농장에서 한 번,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한 번, 두 번의 주일예배를 드렸다. 캠프에는 여러 종교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공식적인 행사로서 예배의식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몽골과 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몇몇의 신실한 청년들과 함께 소박하고 정성어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다. 예배는 농장을 관리하시는 노부부 목사님 내외분과 교수자들이 사용하는 작은 숙소 건물의 어둑한 방안에서 이루어졌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낡은 목탄난로 앞에 둘러앉아 경건하게 묵상하고 찬양하며 노년의 사역자들의 온화한 설교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새로운 복음을 경청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싶을 만큼 고요하고 충만했다.

계절학기를 마치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는 함께 예배드렸던 한국 학생들과 동행하여 교수님이 섬기시는 몽골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쪽빛의 청명한 하늘 아래 하얀 계르로 지어진 교회가 그림처럼 자리해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소박한 제단과 나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찬양 인도자의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을 부르고 성경공부를 하고 몇몇 성도들의 간증을 나눈 후 간결하지만 힘이 넘치는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었다. 뜻을 알 수 없는 몽골어로 이루어진 예배였지만 언어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 후 새신자를 환영하는 시간에 나와 학생들은 교인들에게 환대의

박수를 받았다. 몽골의 교회에서 나는 겸손한 새신자의 마음을 다시 선물 받은 것 같아 기쁘고 행복했다.

3주간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한국어 계절학기와 봉사활동, 문화탐방 등을 진행하느라 나는 자주 지치고 몸살에 시달렸다. 하지만 육체적인 소진과 낯선 언어, 문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나는 친근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었다. 지구 어디에나 펼쳐져 있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늘과 바람이, 초원의 양들과 들꽃이 나를 치유해주었고, 무엇보다 평생을 다 바쳐 주님을 흡모하고 따르는 노년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비전을 짊어진 몽골과 한국의 청년들이 나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 나라 안에서나 타국에서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몽골의 은하수 내리는 초원 위에서 다시 만났다.

내가 인생의 나락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고통에 빠져 갈 길을 잊고 헤맬 때, 주님은 ‘좁은 길’을 통과해 결국에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나와 동행하셨으며, 완전히 빈손이 되었다고 느낄 때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나의 나됨을 긍정하게 하셨다. 몽골에서 이루어진 해외봉사활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내 삶의 쓰임이 무엇인지 알아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간과 공간에 머물렀던 ‘단기선교’의 과정이었다. 단순한 해외봉사활동을 단기선교여행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실천적 행위야말로 ‘선교’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오랜 시간, 노년의 사역자가 몽골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물과 거름으로 다져나간 선교의 열매들을 잠시나마 함께 보듬고 격려하며, 풍성한 주님의 화원에 작은 일손 하나 보태는 것, 그것이 짧은 시간 그곳에 머물며 내가 선한 의지로 감당한 역할이었다. 단기선교란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실현되는 것임을 나는 20년 후의 두 번째 단기선교여행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장 ○ ○

나는 늘 그대로이기만 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끼며 갈급해 있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중에 제자훈련(ADTS)을 소개받고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제자훈련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은혜의 순간은 잠깐이었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우악스러운 소리들과 함께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정된 일주일의 단기선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다가왔다. 먼저 경험한 간사들의 간증들은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역지를 결정하는 기도의 과정과 남부팀 형제, 자매와의 모임을 통해 나는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기도 중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고민하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은 ‘너의 상황들을 모두 맡기고 나와 함께가지 않겠니?’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설렘과 기대를 갖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첫 기착지인 안동역에 담대히 발을 내딛게 되었다.

안동역 광장에 도착하여 드린 SUM ‘예수우리 왕이여’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첫 몸짓이었다. 아픈 다리를 위해 방석을 준비하려는 나에게 다가와 아픈 다리를 주님께 맡겨보라는 간사님의 말 한마디는 나의 세상적 생각과 부딪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눈물이 쏟아졌고 다시 한 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첫날밤 안동 산속골짜기 재품교회에서 뜬눈으로 밤을 세우며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을 구했다. 몸은 피곤으로 지쳐있었지만 나의 영성은 더욱 맑아졌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부산과 통영으로 이동하며 주님께서는 남부팀 형제자매들 각자의 직분에 따라 놀랍고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다. 특히 교회 외벽에 장식된 비둘기, 말씀, 장미넝쿨과 철조망 펜스, 타이어 등 우리가 나아갈 곳을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통영에서의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도 지명이나 풍경과 같은 큰 그림 만이 아니라 확실하고 세밀하게 나아갈 곳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나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해남 땅과 함께 두 개의 십자가와 빨간 해가 있는 바다풍경을 보여주셨고 우리 남부팀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간 해남 송지교회 앞 바닷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렸다.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였다.

이어 우리팀은 경주로 향하게 되었고 천마총 앞에서 은혜로운 SUM을 드렸다. 경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며 마음껏 찬양을 드렸다.

특별히 중보기도 자매님과의 나눔을 기억한다. 자매님과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구석구석에 천국의 보물을 숨겨 놓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며 기쁨으로 천국 보물을 완성해 나아기기를 기

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제자훈련과 단기선교의 기간 동안만 나와 동행하는 분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이 경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모든 삶을 통해 계속 될 것이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김○○

나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까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지방의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유해한 것들에 더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탕자와 같이 살았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사건은, 어머니께서 나의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결혼식 주례는 너무 길고 지루해서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었다. 그래도 목사님이 끝까지 웃으면서 최대한 간소하게라도 해주겠다며 반대로 나를 설득하셔서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이렇듯 주님을 부정하며 살다가 몇 번의 임신 실패 끝에 가진 태아를 23주차에 유산한 후,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 주님을 원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과 약속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를 주시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렇게 힘들던 임신이 한 번에 되었고, 아이도 건강히 자라 지금은 4살의 씩씩하고 개구쟁이 아이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 고등학교 진학 후 바닥을 쳐오던 신앙생활이 기도

와 회개와 교육과 예배로 점점 솟아올라 오고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화평이 되는지 깨닫고 이제는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서의 나는 배우자와 4살 남자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뱃속의 태아를 둔 가장이며 제사장이다. 사회에서의 나의 직업은 군인이며 교회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자녀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가정, 직장, 교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속에 찌든 삶을 살았다. 선을 긋고 살았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주님께 살아드리고 있었다. 이제는 변화되고 싶었다. 주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고 싶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전 세계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성장하여 선교 하자.’이다.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지상과제이다.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지만 “왜 해외에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하나, 국내에도 가지 못한 곳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내가 아니면 누가 가랴’는 생각, 또한 현지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주님과 약속을 했더니, 내가 갈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장소를 정해 주셨다. 주님이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다.

나는 군인이다. 군인이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다. 여러 지휘관의 결재가 필요하고 서류도 많이 필요하다. 군인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을 갈 수 없게 법적 조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은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거의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선교지로 정해진 우즈베키스탄은 다행히 법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였다. 장소는 이제 해결해 주셨고 문제는 기간이었다. 7일의 시간을 빼서 휴가를 가면 나대신 누군가는 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길게 나가면

누구도 반기지 않고 딴죽을 걷다. 그래서 선교를 신청하자마자 새벽기도를 나갔다. “주님, 제가 이번 선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가려고 하니 주님께서 제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며 무작정 부딪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전략을 세웠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묻는다. ‘도대체 우즈베키스탄 땅에 뭐가 있길래 가려고 하느냐, 테러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굳이 가야겠느냐?’ 이런 염려와 걱정을 설득시키는데 3주가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새벽에 나가 기도를 했다. 기도하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 “너는 가서 나의 일을 해라. 네 모든 생업, 가정,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너의 본분을 지켜 행하라.” 지금까지는 주님의 일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꼈다. 주님께 항상 간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구하라, 너의 생각과 지혜는 절대 주님께 미치지 못한다.

10주 동안 선교훈련을 하는데, 나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받아온 나조차도 빨리 선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59명의 선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성장해 나갔고, 마침내 우즈베키스탄 땅을 밟게 되었다.

나는 내가 엄청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군대에서도 특수보직에 필요한 강도 높은 체력을 위해 매일 체력단련을 하고 있었고, 항상 생명의 갈림길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강인한 정신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군대의 특성상 많은 사람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적당한 유머와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선교에 가니 다 헛수고였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를 수 있는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인 것을 느꼈다. 나의 나약함을 깨달았다. 육체의 건강도 정신의 강함도 선교에서는 필요치 않았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선교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고, 갈 곳 없고 잘 곳 없는 우리를 쉴 곳이 있는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밤에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증거를 저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사막

속에 폭포를 찾아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먹을 것이 입에 맞지 않아 밥을 먹지 못하는 조원을 위해 한국식당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를 우즈베키스탄 땅에서 크게 사용하셨다. 우리의 입술로 용기 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그들과 천국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텁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즐겼다. 이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이었다.

선교를 다녀오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영웅적인 일을 하고 왔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영웅적인 삶이 아닌 평소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신다.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특히, 주님의 사역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든 다 응답해 주신다. 주님 나라의 갈망과 조금의 용기만 갖게 된다면, 주님이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신다. 예전처럼 주님께 앙탈 부리며 따라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닌 이끄심대로 끌려가기를 소망한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제는 내 삶의 비전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보기 좋은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겠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8)

참고자료



선교 여정 / 말씀묵상과 나눔 자료

선교여정은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UMVIM(United Methodist Volunteers in Mission)에서 국내외단기선교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 만든 안내서입니다. 이 지침서는 선교여정에 참가한 사람들은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해를 가지고, 현지선교지의 필요에 융통성있게 접근하여 호스트(현지선교사 또는 선교책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분들의 인도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여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문화이해, 그리고 영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훈련 및 선교여정 전(Before), 중(During), 후(After)의 성찰을 통해 선교지와 선교지를 방문한 참여자 모두가 씨뿌리는 자의 비유(마 13:8)에 나오는 “좋은 땅”과 같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선교여정 전·중·후 영성부분을 참고자료로 올려드립니다.¹

/ 선교여정 – 전 BEFORE /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성경본문 |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이사야 6:8)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기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누가복음 4:17-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성찰 | 선교체험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험을 하고 싶은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해주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가? 이전에 참여했던 선교체험은 어떤 것들인가? 이번에도 비슷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응답 | 어디에 가든,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미 그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선교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될 지역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소서. 선교를 통해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나를 살펴보고 나의 마음 알기

성경본문 |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려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누가복음 10:1-2)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시편 139:23)

성찰 | 예수님이 칠십인 제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가? 이 선교 여정을 준비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경험했는가? 그러한 두려움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 특별한 보살핌이나 지도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취약성은 무엇인가? 그런 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응답 |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각각의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목공, 노래, 요리 등과 같이 드러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동기, 이해심, 조직력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중요한 은사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취약성과 약함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 혹은 경쟁해야 하며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은사가 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세심함은 우리를 자애롭게 만들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의 은사와 취약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팀원들과 나눈다.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과 개인의 취약성이 피해가 나타날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

이디어를 나눈다.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할 때에 주님의 보살핌과 임재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소서. 제가 잘 할 때 주님의 기뻐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제가 실수할 때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선교여정 – 중 DURING ,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성경본문 |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시편 24:1-2)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 어디(시편 96:3)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누가복음 10:8-9)

성찰 | 여러분이 되고 싶은 선교사 또는 단기봉사자의 유형을 설명한다면? 생각이 깊은 사람? 배려심이 있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관대한 사람?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선교봉사중 여러분의 기대와 일치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응답 |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기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상기하라. 선교일과나 사역이 계획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 매일 여러분의 선교일기에 감사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람, 장소, 사역에 대해 기록 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 변화

가 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팀리더나 선교책임자에게 이야기하고 논의한다.

기도 |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과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느끼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휼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나를 살펴보고 나의 마음 알기

성경본문 |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빌립보서 4:10-14)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이사야 12:2)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성찰 |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 드러나는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무언가 말해

주려는 친구로 받아들여라. 자기공감을 하며 받아들인다. 욕구는 보편적인 것 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 분노가 있는가? 드러난 분노를 뛰어 넘어 상처, 두려움, 외로움, 인정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부수적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라. 말씀에 비추어 나의 감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응답 | 당신의 성취된 바램들을 열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불편한 감정들, 충족되지 못한 바램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만족시킬 창의적인 방법들(실질적 문제해결, 의미부여)을 찾아본다.

기도 | 생명의 하나님, 변함없는 임재와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불편함이나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주시고, 강인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성찰 | 여러분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 하나를 나누라.

한 장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다면, 거기에 누구 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가장 긍정적인 경험은 무엇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뭔가 특정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언제 느꼈는가?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언제 느꼈는가?

여러분이 사는 곳, 문화적 배경, 경제적 요인, 국적으로 인해 누리는 특권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의 선교체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교체험에 대해 무엇을 알았으면 하는가?

이 체험 이후로 여러분의 생활방식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가?

/ 선교여정 – 후 AFTER ,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성경본문 |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깨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6-10)

성찰 | 선교여정을 마치고 복귀하면 만감이 교차한다. 가족과 친구들과 재회하면서 일상의 안도감과 평안을 느끼면서 또한 선교여정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무엇인가?에 물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와 고통을 목격하는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은 누구인가?

응답 | 여러분이 체험하고 배운 내용을 전달할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활동들을 지지하고,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의 좋은 면들과 그들의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돋는 서적을 읽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선교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도 | 창조주 하나님, 저희 선교여정에 베풀어주신 모든 축복과 주신 도전과 제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선교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과 저희가 나누었던 모험들을 추억하느라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마치지 못했던 일들을 무사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선교사역을 잘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던 분들과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희가 얻은 새로운 통찰과 추억들을 음미하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주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에 대해 저희가 사랑과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나를 살펴보고 나의 마음 알기

성경본문 |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예레미야 17:7-8)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 4:6)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27,33)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0) 오직 여호와를 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 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성찰 우리가 다른 문화에 노출되면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된다. 여러분이 선교체험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 통찰, 인식은 무엇인가? 선교여정중에 했던 영성훈련이 일상생활로 돌아와 살다보면 곧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새로운 영적 습관이 형성되고, 그 습관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려면 최소한 4주간 매일 실천해줘야 한다. (새벽기도의 힘!)

응답 |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정한다. 새벽기도, 말씀묵상, QT 등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나 묵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무엇을 하던지 여러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일기에 기록한다. 만일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기도 | 주 예수님,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고, 주님을 더 소중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IPS for Leaders 효과적인 소그룹인도방법 (by Jane P. Ives)

1. 리더는 리더의 견해나 생각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유로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2.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극적인 참여자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점하려는 참여자를 적절하게 제어한다.
3. 2번을 위해 나눔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생각들을 적을 시간을 부여한다.
4.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
5. 기도로 시작하고 끝마친다.

1 | 전체 선교여정자료는 <https://upperroombooks.com/book/a-mission-journey/> 구입가능하며, 또는 연합감리교 <https://www.umvim.org/resource-menu>에서 Team Leader Handbook, Team Toolkit and Forms 등 유용한 단기 선교관련 자료를 무료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K-원정대’, 313 래더버스(ladder-verse) 타보기

/ | . 들어가는 말 , /

1. 새로움은 전통과 현장에서 나온다

“ 이후로는 영구히 입국할 수 없습니다.”

“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서 선교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 취업비자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금요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 특별한 어떤 사역보다도 몇몇 분들이 오셔서 릴레이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역전이나 터미널에 노방전도하러 나갔었죠. 한쪽에선 엎드려 기도하고 나머지 분들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면 열매가 있긴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의 전도에 사람들이 호응을 해올까 고민입니다. 코로나19시대에 특히 말이죠.”

코로나19시대 해외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자발적 철수 및 이동과 기도 요청에 관련한 선교사들의 상황, 그리고 국내 전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있기

를 바라는 어느 교인의 토로였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가만히 넋 놓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비자 획득의 안정성과 현지에서 장기간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국공립 직업학교 대신 사설 요리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현지인 친구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 집중했지요. 필기와 실기시험은 하나님의 절묘하신 도움의 방식에 힘입어 현지 요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2021년 7월 한국에 잠시 나온 그 선교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호주, 미국, 네팔, 쿠바, 폴란드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연회 인준 기관, ‘냉난방 선교회’에서는 그곳에서의 초청에 준비하고 있다. 이후 이런 일들이 현지인 대상의 전문 교육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가 곁들여지는 여정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비거주 선교 형태인 것이다.

상기한 배경 속에서 일주일이나 10일 혹은 한달이라면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니 ‘선교지에서 단기간 살아보기’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3(전)-1(중)-3(후) 혹은 3-3-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 이미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에 인식돼 있기에 이를 해외 선교현장으로 옮겨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시도와 돌파의 열정이 치솟았다.

왜냐하면 ‘새로움이란 변화 속 전통과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시편 44편의 상황¹처럼 ‘숨고르며 몸부림치는 시기’이며 간구하는 변혁의 시기이다.

2. 가만히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 대목에서 홍해를 건너던 모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출애굽기 14:14-15, 19-20을 보자. 거기는 우리가 맞닿을 미래, 그 “약속의 땅”으로 가

는 광야 여정과 관련한 개인을 넘어 운명의 신앙공동체인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엿보게 한다.

“가만히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명령. 이렇게 전진할 때 주님은 안내자에서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길을 터 주고 뒤에서 커버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 아래 ‘자립해 보려는 시도, 거룩한 행진’의 원리를 산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미래란 ‘주를 신뢰하고 백성에게 권유함과 동시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된다.

이와 같은 자립적 행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수행의 실천이다. 즉 은혜에 의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에 동참하는 일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엡 2:11-3:13)

그러니 어째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과거, 그 원인을 생각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넘어가는가. 현재 및 미래지향의 해결방안 모색 및 전망이 중요하다.

우선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이고 선교 아닌가. 살아야 하고 살려야 하니 보내라! 누구를 보낼까 하는 것 말이다. 어느 곳이 빈 곳인지 탐색, 채워야 한다.

이처럼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체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화두는 ‘변화’, ‘기본’, ‘공정’, ‘격차’ 속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모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생각 감정 의지가 되는 임마누엘로의 재전환’에 직면해 있다.

3. ‘임마누엘’에서 ‘이티엘’²로의 전환, 자신의 재발견

필자는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9년여를 보내고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만 4년이 넘어 5년 차에 진입했다. 교회개척 초기 2년 동안은 하나님을 보게 했고 이후 2년(2020-21년) 코로나19시대 현재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신다. (참고, 사 40:9)

지난해 2020년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자 정체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이중직 목회자 연대’ 창립(2020.11.9)이었다. 물론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제한적 이중직 허용’을 시대에 발맞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의 목양 전념 외의 ‘생활 속 다른 직업’이라는 개념과 실체가 자연스레 보편화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선교적 텐트 메이커에서 목회적 텐트 메이커로의 확대이며 ‘전환’이다.

이 말은 ‘선교적 교회’와 생활 속 ‘일하는 목회자’ 사이 그 인식변화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수용도’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실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수행도’의 상관관계로 관심이 확대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시대는 ‘교회론’과 ‘교역자론’, 그리고 ‘선교론’과 연관된 ‘그리스도인론’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들고 있다. 한번 더 “복음과 상황”, 『그리스도와 문화』, 즉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율법과 복음』인 것이다.

파송의 의미가 깃든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선포, 대화, 권면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이를 찾게 하는데 일조한다.(참고, 요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예화) 따라서 ‘화살표 선교’는 인생 여정 중 특별한 복음적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지저스 인카운터, 영성 트립’이라고도 이름지어 본다.(참고, 부록 UMC 단기 선교 매뉴얼 [여정] 요약)

이는 거룩한 씨와 연관된 좋은 마음 밭을 조성하는 경작과 연관되는데 기존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 그 ‘원심력의 미션(mitto, 보내는) 개념’만큼 “스스로 있는 자”와의 만남,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원형적 체험이 더 절실하다는 ‘구심력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대로 ‘이티엘’의 신비를 새롭게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4. 화살표 선교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면서 “인생이란 뭘까?”를 질문하고 출구를 찾고 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의 삶, 제멋대로 “함부로 쏜 듯한 그 화살”³과 칼을 따라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구원의 화살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

나라.”(요 14:6) 즉 쿠르즈 화살표(cruise arrow)를 새롭게 다시 따라가야 하는 인생임을 알아챈 것이다. 피조물의 연약함 확인, ‘자신의 재발견’ 시대를 지나고 있다.

방심한 틈을 타 경험하지 못한 긴급한 순간 인생의 망연자실이 드러났다. 우왕좌왕하는 중 해결 방법 모색, 화살처럼 짧은 인생. 이 상황 속에서 “영생의 말씀 경청수행 그림 나도 ‘직면한 상황, 적합한 방향, 다시 예수 영성의 길, 그 구원의 화살표를 따라 평생에 한번 만이라도의 선교’를 떠올린 것이다”.

하여 필자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는 ‘만인 그리스도인의 단기 선교’를 제안, 규정하며 이 단어를 사용한다.⁴ 물론 기존 단기선교 유형으로는 4가지이다. ①비전 트립 ②미션 트립 ③단기 선교 ④비거주 선교가 있다.

어떤 유형이든지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운명적 만남, ‘지저스 인카운터’이니 ‘화살표 선교’는 영적 여정, ‘영성 트립’인 것이다.

더욱이 이 ‘자신의 재발견’은 결국 ‘신비의 재발견’과 연동되는데 필자는 오래 전 터키 땅 ‘하란’을 순례하면서 야곱의 사다리와 관련한 착상을 한 이후 “신비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교적 영성이 다시금 찾아야 하는 덕목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화살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그 주도권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통한 ‘자신의 재발견’, ‘신비의 재발견’ 시대. 디지털 감성(반려 avatar 꾸밈, AI 아이돌 팬덤 등) 적응, 뜨는 곳으로의 유목적 이동성(차박 등), 튜브 넘어 실물적 현장성 강화(체험), 은사적 전문성 활용에 대한 키워드를 상기하면서 들어가 본다. 신비와 수덕, 그 계시에 대한 현실적 행진, ‘래더버스’를 타는 순서인 듯하다.

5. 래더버스(ladder-verse), L우주⁵ 개념 도입

〈코로나19〉를 맞이해 지구는 그 발전 속도와 공간은 ‘바이오’ 산업과 ‘국방우주’ 산업이라는 상이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보인다. 바로 바이러스와 백

신이라는 마이크로 세계와 화성(Mars)으로 대표되는 지구 밖 우주 경쟁과 이동식 핵미사일 발사라는 매크로 세계로 말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회전하는 ‘불타는’ 지구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의 단기선교 모델 탐구와 관련해 연구 방법은 전통적 접근 방식의 ‘성경 연구’이다. 여기에 ‘국제 관계학’에 대한 관심을 갖길 권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공이 아닌 일상 사회 속 글로벌 국제 환경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래서 기존의 선교학이라는 용어 대신 ‘영정 지정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다. ‘하늘의 뜻을 살펴, 생명을 살리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영성’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상에서 수행하는 선교’를 통합하는 개념인 ‘영성 지정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관을 ‘야곱의 사다리⁶’를 ‘날개 달린 사다리, 고독한 상승, 거룩한 행진’의 ‘래더 버스(Ladder-verse)’라 이름지어 코로나19 시대의 화살표 선교 모델에 접근⁷하려 한다.

/ II. K- 원정대⁸ 이해 ,

1. 세계관⁹의 변화 재인식

앞서 설명했듯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우리들 가운데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 정신’¹⁰을 증거하는 선택적 일상에 놓여 우리의 결단과 용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믿고 조금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후 약 2천년이 지났다. 기독교의 재학인, 『창조자의 정신』¹¹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뛰어넘어 급기야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 발전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신처럼 될수 있다”는 『호모 데우스』까지 즉 ‘호모 애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진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침내 죽는 존재다’.

하여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그 복음, 율법의 완성인 사랑(마 5:17, 롬 13:10)은 유효하다. 이렇듯 복음은 양면성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해 왔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암송 실천해 오고 있지만 최근 몇 세기는 종말론적 그 율법의 심판을 등한시해 온 경향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인류로 하여금 이 시대가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새롭게 조정하는 대전환 시대’임을 인식하라는 준엄한 경고로 읽혀진다.

새롭게 조정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유대)종교 (헬라)철학적 ‘사상의 기준’ 및 (인본주의) 이성적 ‘과학기술 관점’을 성찰하여 성경적 관점으로 재종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종합한다는 것은 중세의 종합적 세계관 – (근현대의) 탈종합적 세계관을 거치¹²면서 만난 코로나19라는 현상과 성경적 세계관, 래더버스 (Ladder verse, 사다리 우주관)으로의 재정립, ‘언약 성찰’ 수행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여행트렌드는 기존의 여행 성격에서 새로운 전환을 통과하고 있다. 단기에서 장기로, 여러 곳 점찍는 방식에서 선택 집중 모델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¹³해 보아도 K-원정대 기획은 시의적절하다.

2.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로 인식 전환

선교사의 철수가 가중되고 있는데 감리회의 경우, 자발 및 비자발 철수를 포함해 코로나19 이후 110~120 가정이 될 것이라고 본부 선교국은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비자 발급도 여의치 않다. 주니어 선교사의 충원율은 떨어진다. 새로운 선교사들이 채워지는 과정중에 장기 체류 선교사의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거점확보는 계속돼야 한다. 글을 쓰는 2021년 9월 말 현재. 제4차 유행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돼 다시 새롭게 여러 길(하늘, 땅, 바다)들이 열린다면 기존의 여름이나 가을 사이 일부 특정 시즌에서의 단기선교 집중역량 강화를 열정적으로 완수하리라 결심도 한다. 더불어 비시즌 기간에도 선교 현장 거점을 견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소망도 품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은 기존의 오프라인 설교를 온라인으로 그 축이 자연스레 이동하게 하는 외부적인 동인이 됐다. 집집금지는 익숙해졌다. 장년들의 속회는 그 모임이 제안되고, 주일학교가 가장 타격을 받았다. 다음 세대로의 신앙 승계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현재 추이를 관찰하며 나름의 대응을 해 오고 있듯, 다음 행보를 예측해 기획을 해보는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광야의 영성, 그 야성, 예언자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개체교회 목회자 및 선교부장 등의 '선교지에서 살아보기'를 우선적으로 솔선수범 해보길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목회계획에 대한 재점검을 요하는 것으로 세계와 국내를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

교회내 년중 계획 프로그램 상의 1주일 내외(직장인 교인들의 휴가일을 기준) 단기선교 개념에서 탈피해 현장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성의 회복'은 우리 일상 및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인생에 대한 재성찰과 연관된다. 그 주제는 죄와 욕망을 넘어선 "전함과 사귐, 누림의 기쁨 충만"(요일 1:3-4)에 귀를 기울여 보는 일이다.

우리, 복음과 성령의 운행을 전통과 제도 속에서 좀 풀어놓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교회론과 교역자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 K-원정대, '선교지에서의 살아 보기'는 ①목회자의 안식월 개념을 실행하는 차원도 좋고, ②선교부장의 환기와 새로운 안목 확보에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영성지정학' 개념도. 래더버스(Ladder verse; 사다리 우주)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약 성서의 '빛Light, 생명Life, 사랑Love의 개념을 'L우주'로 이름지어 구조화. 즉 한적한 곳에서 기도, 그 상승과 하강 및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평적 사역을 결합한 생명나무 사다리, 구원받는 행복의 길. '나무와 길' (요 14:6) 이미지로 묘사해 보았다. 즉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10,33)." 따라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소명을 받아 지금 있는 곳, 직장, 가정 일터에서 은사를 발휘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관련한 학문. 하여 이는 천국, 공의 및 인간의 운명과 연관된다. 각자 자신이 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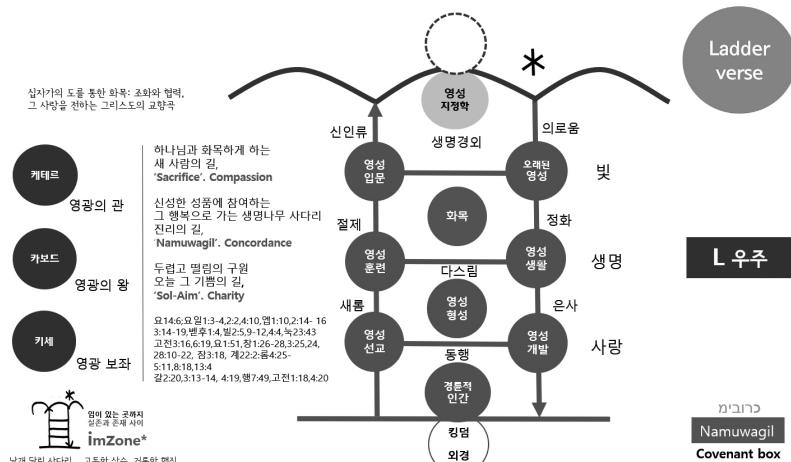
더욱이 선교사 출신들의 ③비거주 선교사 역할로의 전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이들의 '선교지 순회' 사역도 예측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전망을 해보는 때를 통과하면 좋겠다.

K-원정대는 기존 단기선교의 교회의 연중프로그램인 고정된 여름시즌의 집중시기를 탈피해 비시즌에도 좀 벌려 보자는 의도이다. 그러니 K-원정대는 둘씩둘씩 짹을 지어 보내는 릴레이 단기선교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영성과 신학, 그 각각의 정수는 거룩함과 온전함'이니 이 둘의 균형을 위해 감찰하시는 말씀을 의식하며 풋대를 향해 행진해야 할 것이다. 신비는 신앙이기도 하며 신학으로 동시에 반응되고 있다.

3. 커리큐럼, 3(사전)–1(현장)–3(후속) 래더버스 타보기

〈영성지정학(The geomissiology on parakletos)〉



‘영성지정학’ 개념도. 래더버스(Ladder verse; 사다리 우주)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약 성서의 ‘빛Light, 생명Life, 사랑Love’의 개념을 ‘L우주’로 이름지어 구조화. 즉 한적한 곳에서 기도, 그 상승과 하강 및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평적 사역을 결합한 생명나무 사다리, 구원받는 행복의 길, ‘나무와길’(요 14:6) 이미지로 묘사해 보았다. 즉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10,33). 따라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소명을 받아 지금 있는 곳, 직장 가정 일터에서 은사를 발휘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관련한 학문. 하여 이는 천국, 공의 및 인간의 운명과 연관된다. 각자 자신이 되는 일.

상기한 커리큘럼은 15강 내외로 구성돼 있다. 영성지정학을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래된 영성, 영성 입문, 영성 생활, 영성 훈련, 영성 형성, 영성 개발, 영성 선교 그리고 경륜적 인간이 ‘이론’이다. 선교적 ‘실제’는 각 영성 주제 강의 다음에 성경적 인물을 조명함으로 구체화 된다.

영성 입문 시간 다음에 노아의 영성과 선교로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영성 생활은 영혼의 정화로 아브라함의 영성과 선교를 할 것이다. 영성 훈련은 코람 데오, 육의 영성과 선교가 진행된다. 영성 형성은 엔 크리스토, 야곱의 영성과 선교가 진행된다. 영성 개발은 메타 프뉴마,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과 선교를 따라가 본다. 영성 선교는 지저스 인카운터, 바울의 선교와 영성 들여다 보기이다. 경륜적 인간(parakletosego)은 임마누엘, 보혜사와 함께하는 즉 ‘이티엘’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각 개교회에 상황에 따라 K-원정대의 커리큘럼을 3주-1주-3주로 일정을 짜보든 30일-10일-30일로 혹은 3개월-1달-3개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 하던 간에 3(사전)-1(현장)-3(후속)이라는 패턴을 유지해 보길 제안한다.

상기한 영성지정학 개념도에는 가려고 하는 선교 현장의 자리 역사 언어 문화 공부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 Ⅲ.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 인프라 구축 ,

1. 임마누엘 로드

가. ‘K-원정대’의 수행 참여로 만들어지는 선교 로드, 플랫폼 구축!

〈코로나19〉시대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를 거쳐 델타 변이로 확산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초기의 ‘자민족주의 심화’로 국경선 폐쇄 국면을 떠다가 현재는 그 나라 경제 활성화 강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로 방향 전환하기도 한다. 여기에 일부 국가의 내부적 ‘혐오범죄’가 심심치 않게 부각되는 등 현 세계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여러 현상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국내 외국인 체류 인구 점유율이 높아지는 다문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적합한 사회구성체 구축을 위해 전통적 성경적 원리로 히브리서 12:14¹⁴과 요한복음 10:16¹⁵ 및 잠언 23:9¹⁶, 마가복음 6:11¹⁷, 마태복음 7:6-8, 12¹⁸이 이 글의 배경으로 스며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바탕에 깔고 ‘자신의 재발견 및 신비의 재발견 시대’를 맞아 새로운 단기선교 모델, 화살표 선교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를 탐색한다.

나. 국내 본부와 해외 현장의 네트워크 ‘임마누엘 로드’ 구축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 위해서는 ‘이동식 장막’ 개념에 추가로 ‘물질적 하드웨어’라는 실체가 요구된다. 물질적 하드웨어라함은 인프라 구축을 말하며 일종의 센터다. 이미 각 선교지에서는 교회의 연결고리로서의 센터를 갖고 운영하는 곳이 꽤 있다. 이곳과의 연결을 지금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전체적 그림을 그리되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음에도 시도하는 일이다. 지역별, 종교권별, 문화권역으로 구분해 연차적 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임마누엘 로드’로 명명한 〈코로나19시대〉 단기 선교의 인프라 구축은 중요하다. 개별적 산발적 연결을 넘어 안정감과 더불어 공신력을 주는 것이 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새롭게 모아야 하는 때다. 사회적 거리는 흩어지고 영성선교적 거리는 집중하는 때를 지나고 있다. 오히려 흩어지는 시대에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 전했”(행 8:35)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2 K-원정대 플랫폼

가. 옴니버스 릴레이 랠리 방식으로 응전

이 ‘임마누엘 로드’를 타고 K-원정대가 이동할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우선적 모험의 방식도 있으나 우리는 이미 정리된 일정 정도의 길을 타고 이동한다. 우리의 ‘영성선교 여정’은 그래서 당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필자는 이 ‘임마누엘 로드’라는 하드웨어 위에 두 세계(아날로그와 디지털 현실)를 경험하고 있는 원정대에게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세계의 결합인 ‘래더 버스(ladder verse)’ 개념으로 무장한 ‘K-원정대’ 플랫폼을 탑재하자는 것이다. 이는 ‘임마누엘 로드’ 위에 주니어와 시니어의 결합, 미래세대의 추진력에 시니어가 함께 조응하는 방식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둘씩 둘씩 짹을 지어’

‘수동성-기도’과 ‘능동성-현장 돌파력’이 결합된 형태이며 개념의 실제화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구현 추구이다. 연합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K-원정대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요구된다. 바로 ‘사다리’다. 이는 소수의 고독한 영적 체험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또한 공동체적 영성의 화목제(fellowship)라는 마중물이 된다는 성경적 원리의 이해와 확산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즉 야곱은 20년간 혹독한 고독의 ‘하란Harran’ 생활을 마무리하고 양복 강에서 그 이전까지를 총정리하면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후 약속의 땅의 거주 속에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 이스라엘 민족의 일가를 이뤄내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넜을 때 중다한 잡족들은 하늘을 향해 새로운 백성으로의 가능성에 흥겨워 모세의 노래 및 미리암의 노래로 화답하며 집단적 춤에 참여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쾌지나 칭칭나네’의 선창과 후창으로 이어가고(릴레이) 주고 받는(랠리) 하나 됨의 커뮤니케이션을 연상케 하니 요즘으로 치면 BTS의 “PERMISSION TO DANCE”의 확장성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래더 버스, 경외심의 사다리 영성과 흥겨움의 잔치, 선교 지향의 통섭’으로의 접근, 거룩한 바람의 향연으로 지구인(planetary human)을 지향한다. “지혜의 집에 세워진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잔치에 초대해 생명을 얻으라는 권유의 봄짓.”(참고, 잠언 9:1-6,10)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한 잡족을 거쳐 새 백성으로 변화 발전하는 여정의 광야를 통과했듯 우리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뚫고 올라가자는 것이다.

K-원정대는 각 국가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이라는 현실에 따른 대응으로 기획됐다. 해외현장을 연속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함인데 실제 참여자는 짧은 거주 형식으로 이어지고 주고받는 ‘옴니버스 릴레이 랠리’ 방식으로 응전하는 시도이다. 현장 장기간 시니어 선교사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진지 전을 위한 투입이기도 하다.

나. 특수 목회를 선교 현장의 고리로

이런 기조하에 현재 목회 현장에서 시도되는 특수한 생활 선교 사역을 뽑아 해외선교 현장과의 연결고리를 모색해 보자. 예를 들어 서두에 언급을 했듯 냉난방 선교회처럼 교역자 및 교우들이 참여하는, 인테리어 목공소, 자동차 정비, 바리스타 선교회, 홈페이지 구축 커뮤니티. 동서의학 선교회,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말거는 공작소, 들락날락 예술 가게, 벽화 그리기, 성악 교실 등 은사적 전문기능의 접근이 요청된다.

“현장에서 화살표 선교 K-원정대가 살게 되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필자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구두 설문조사는 우선은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답변했다. 현장 역시 어린이 사역과 여성 사역의 확대를 위한 지원 요청이었다. 일부는 인터넷 홍보 관련한 촬영 및 편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말하고 있으며 난민 사역의 경우 역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영어 및 놀이 사역도 들어있다. 앞으로의 화살표 선교는 선교 현장과 국내 준비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더 긴밀해야 함을 반증한다.

연령층과 성별, 가족 중심, 하드웨어 리뉴얼 같은 현지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에 상응하는 실물적 공학적 접근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 했듯 현대 선교의 이슈인 난민 상황 등도 우리가 관심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따라서 준비 기간중 K-원정대, 예비 참여자간의 동질감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은 해외 현장에서 벌어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집단적 대처이며,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보편적 인류애로의 공감력을 확대하는 자세로 다듬어져야 한다.

이런 훈련은 지속 가능한 전문화로 축적되는 방향을 놓치면 안된다. 특히 이렇게 K-원정대의 일정 정도의 적합한 기간 체류와 연결 지속은 현지 선교사 가족에게도 안정감과 도전을 줄 수 있다.

기존의 SUM(선교지에서 필요한 전방위적 사역 도구 및 매뉴얼)을 ‘현지에 하나의 거점을 실제로 세우는 운동’으로 확대 전환하는 아이템 개발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일회성 도구화에서 현지 토착화 구축 모색이다. 이는 ‘K-원정대’ 원들이 우선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격증이 요구되는 은사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획득할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이 부분은 본부 선교국에서 기획중인 (가칭)Global Missionary Internship에 기대를 걸어본다.)

다. 313 래더버스 타보기 첫 단계_ 사전준비¹⁹ (지역 연구와 기본언어)

K-원정대 교육은 일선 개교회에서 보다는 선교국 중심의 TF가 구성, 운영 돼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 진행할 사항이지만 변화된 인터넷 비대면 환경속의 온라인 접촉 교육을 현장과 국내의 이원화, 다양화 네트워크는 더 심화 강화될 것이다. 국내에서 현지의 상황과 사전에 친숙해지는 과정이다.

서버는 한국에 두고, 현지에서 선교사와 국내 참여자가 온라인 교육 어플을 활용해 집단 참여를 하는 것이다. 지역 연구, 기본 언어 및 현장 모습, 시뮬레이션이다.

1) '원심적 선교'만큼 '구심적 영성'을 강화

우선적으로 '영성의 선교회'에 대한 방향 정립, 선교사의 정체성 확립 강화가 기본이다. 2개월을 영성과 선교 관련한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8회, 각 1회당 3강씩(1강당 45분) 앞 시간은 영성, 뒤에는 선교를 배치해 진행한다. 뒤쪽의 선교부분은 현장의 얘기로 구성돼야 한다. 그곳의 실생활,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관심갖는 주제, 일주일의 생활상 사전 교육, 현장에서 영성 생활과 현지 선교사 사역의 빈 곳을 동역하는 펠로우 관계를 세밀하게 적어보는 훈련이 요청된다. 3강은 현장 언어에 친해 보는 시간.

커리큘럼을 도표화하여 프로그램을 예시해본다. 이것을 참고해 재구성, 각 회수에 3번째의 강의 추가해, 실행해 볼수도 있다.

회수	강의	구분 및 내용	비고
1	개강	영성지정학	
	1강	오래된 영성을 따라서	
2	2강	영성 입문, 그 방침	
	3강	노아의 영성	
3	4강	영성 생활 – 영혼의 정화	
	5강	아브라함의 영성	
4	6강	영성 훈련 – 코람 데오	
	7강	욥의 영성	
5	8강	영성 형성 – 엔 크리스토	
	9강	야곱의 영성	
6	10강	영성 개발 – 메타 프뉴마	
	11강	베드로 요한의 영성	
7	12강	영성 선교 – 지저스 인카운터	
	13강	바울의 영성	
8	14강	카파도키아의 영성	
	15강	경륜적 인간 – 파라클레토스에고	

나머지 3개월째는 현지 선교사의 안내로 현장과 국내를 연결해 직접 생활속 현장언어에 조금 더 익숙해 지는 시간을 갖는다.

2)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해

우리는 요즘 가상 현실을 통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선교는 직접 현장으로 가야 한다. 오감(시청촉후미)을 통한 인격적 만남과 지정의(知情依) 체험이 요구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상기해 본다.

선교하는 삶이란 우선 ‘들어가는 일’이다. 찾아가 관계를 맺는 일이다. 들어가서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깊이 내려가야’ 하고 그 이전엔 ‘내면으로 물러나야’ 한다. 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도 하는 일을 체험하게 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선교지 선교사의 사역의 유형에 따라 다 다르다.

여기에 하나의 틈이 있다. 선교에 ‘구제’와 ‘도움’이라는 것을 탑재하는 것이다. 직접적 현금이 아닌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직접 도움을 주는 일상속 지원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코이카(KOICA)처럼 장기간 연속성을 띠면서 현지 사역에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뿌리 내리는 일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가 동시적으로 일어나 우리를 급격한 일상으로 밀어넣었다. 상대방도 선교와 선교 패턴들에 대해 알고 있다. 첨단 기술과 위치 추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가능한 시대이니까 말이다.

이런 방어망에 대한 틈은 ‘보편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의 우월성을 믿고 기록된 히브리서 12:14은 21세기를 통과하는 기본적 원리로 우리를 개방된 그리스도인 –인간에 대한 이해– 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물론 거룩한 것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막 내줄 수는 없다.(마 7:6) 선구안이 요청된다. 필자가 자주 사용하는 ‘모험적 화이부동’이 필요한 것이다.

선교하는 태도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알려주고 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없이 하라는 말은 현재적이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성 확보다. 상대 현지인들은 눈치가 빠르다. 우선 서로 간의 인격적 만남이 기본이다. 신뢰를 쌓는 일, 일부 오래있는 시니어중에는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소식이 우회해서 현지인들을 통해 다른 선교사들에게 전해진다. “그 사람 약삭빠르다고 별로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야 함을 전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요 13:34-35)을 잊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도전이다.

3) 전문성 심화 강화 프로그램

“천국은 우리 각자의 운명과 연결된다”²⁰고 필자는 믿고 있다.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상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니,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기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다면 든든하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 성령과 큰 확신을 키우는 일이다. 정보와 지식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강화하는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현장에서 체득된다.

본부 선교국이 준비하는 GMI(Global Missionary Internship: 24-35세 청년들 대상으로 2년간 현지 선교사역 지원, 생활비 보조, 보험 주거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현장경험과 비전 탐색 기회의 인턴십)는 시의적절하다. 이와 같은 현실적 프로그램으로 은혜와 열정이 새롭게 펼쳐져 선교의 다음 세대가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니어 교우 가운데 각각의 전문성을 묶는 역할이 TF에 필요하며 이들과 GMI에 선정된 청년 세대의 사전교류는 새 실험이 될 것이다.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르다. 이 플랫폼은 일종의 노는 물이다. 예를 들어 제페토,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이 가운데 공통된 플랫폼 이용하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과 의지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화목 지향의 참여자를 통해서 선교 전략가들이 기획한 선교 플랫폼이

역동성을 얻길 희망한다. 출발 전 3개월의 교육과 관련해 전통 – 현대 – 전망이라는 주제를 수직축으로, 국내와 해외현장을 수평축으로 좌표를 만들어 이를 범주화해 접근해 보자.

라.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_ 현장 관찰, 조력

3주, 30일 혹은 3개월 준비는 화살처럼 빠르다. 시작할 때 긴장하지만 어느덧 익숙해져 어느새 현장에 도착해 있다. 현장의 1주일, 10일, 혹은 1달은 더 빠르다. 일정표를 잘 짜야 한다. 더욱이 현장에서 3개월 프로젝트 중 일부의 기간(1주, 10일, 1달 등)을 맡게 된다면 앞과 뒤의 이어지는 사람들과의 고리를 잘 짜야 한다. 영화 제작의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듯, 잘 짜여진 ‘영성트립 보드’는 견고하고 깊은 성채처럼 안과 밖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1) 숙소

어디서 숙식을 할 것인가? 이는 중요하다. 화살표 선교 참여자 영성트립파의 영성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장 선교사와 같은 집에서의 숙식은 지양하라. 동고동락해서 뭔가를 얻기에는 약 1개월 전후의 기간은 짧다.

선교 현지에서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일정 기간 비우는 일들이 생긴다. 안식년 안식월. 등 이런 내용들이 현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되기에 앞서서 예정된 일정 기간에 알맞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모든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 자취가 가능하다. 특히 영성생활을 규모있게 할 수 있다. 내면으로 물러나는 시간, 깊은 데로 내려가는 숨결 호흡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선교지에서 살수 있다. 열정으로 하기엔 여러 변수들이 생긴다. 하나님의 일에 사탄이 동시에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한 달간의 영성일지를 집중해서 쓰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해도 좋다. 읍기 잠언, 시편은 “진실의 책들”로 알려져 있지 않던가.

2) 일정

이미 선교 현장으로 가기 전에 현지 선교사와의 조율로 1개월 일정, 각 주 일

정, 하루 일정 등의 큰 윤곽을 알고 K-원정대원은 출발한다. 사전의 예비 훈련으로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지 선교사는 도상에서 이뤄진 것을 현장에서 익숙하도록 며칠은 현장 탐험, 일종의 땅 밟기(행진 기도)로 주변 이해를 시킬 것이다.

물론 사역의 내용에 따라 즉시 투입도 있을 것이니. 시차 적응하면서 3-4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일정표가 나오면 자신의 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날짜별 시간대별 항목별 이것이 다음 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다음 화살표 선교의 링거 름이 된다. 연륜이 쌓이고 자신만의 선교 신학 및 영성도 불게 된다.

3) 과정과 결과물 도출

현장에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간구하라. 내면의 목소리, 세미한 음성을 만나면 삶이 바뀐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선교지에서 만나는 성령의 체험, 평생을 좌우한다. 아침 묵상에서 주님을 만나길 간구하라. 가기 전에 선교 현장의 내용을 책으로 엮을 생각으로 준비하라. 사전 준비, 현장에서의 풍광속에서 성령의 운행과 조우하길 간구하는 일이다.

– 난민 사역을 하는 해외 현장을 예를 들어보자.

난민 문제 관련한 스토리 보드를 만드는 것이다. 도표와 그림, 사진, 통계를 기반으로 역사 현황 전망 등의 흐름도에 따라 그리고 국내 난민 현황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다. 현장 리서치와 국내 난민 선교 현황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주	구 분	내 용	비 고
1주	현장훈련, 행진 기도	현장 강의, 시차적응	둘씩 둘씩
2주	지역교회 사역	어린이 청소년	
3주	지역교회 사역	교인 시니어 심방	
4주	난민사역, 행진 기도	난민 사역	

– 각 은사별 전문성과 연관돼 현지 선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구축.

마. 귀환후 3개월 _자료집 제작

이미 이 부분은 기존에 행한 방식이 있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동질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시 시차 적응으로 며칠이 소요된다. 화살표 선교 기획중(3-1-3)에 이미 들어가 있기에 기획과 현장 확인, 소감 등을 전체적으로 갈무리해 자료집을 만든다. 전체 자료집도 좋고 개별적 책으로 특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이후 출발하는 이들을 위해 알차게 집필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웬만하게 만들지 않고는 잘 보지 않는다. 인터넷 공간 투브를 활용해 연작물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보안에 신경을 써야하는 국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교회 및 단체내 다음 기수를 위한 피드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사전에 준비하기 바란다. 준비 단계와 현장, 이후의 생각 추이 파악을 통해 보완되는 것들이 생긴다. 개별적으로 선교지에 갈 예비자를 모아 동질감을 갖게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교회에서 종교권별 집중력을 갖고 특화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좋다. 비전을 품고 현지 선교지에 실물적 건물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릴레이 중보 기도팀을 현장에 보내는 방법도 있으며. 특정 전문가팀을 보낼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씩 둘씩 보내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 해당 선교지 중보기도 네트워크

필자의 중보기도 구호이다.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뤄진다.’(출 17:8-13)

현장에 다녀오고 난 이후도 중요하다. 중보기도팀을 꾸리는 것이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중보기도 해당자가 지정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 현장을 생각하면서 만났던 현지인이나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권면하라. 성령은 여전히 거룩한 바람으로 운행하신다.

중보기도자회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기도제목을 서로 서로에게 보내게 하라. 5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이상이 되면 한 팀으로 다시 모은다. 이를 연결해

네트워크 하라. 서로간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 IV. 나오는 말 /

지금까지 변화하는 세상(코로나19, 제4차 산업혁명시대, 메타버스, 움직이는 스쿨, MZ세대의 사고방식의 변화 등 '자신 및 신비의 재발견 시대') 속에서 시니어와 주니어의 행동방식 격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의식하며 코로나19시대의 '화살표 선교 모델'을 제안해 보았다. 이 모델은 '래더 버스'라는 개념하에 둘씩 둘씩 짹지어 가는 K-원정대의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로 명명했다.

개념의 실체화로 '임마누엘 로드' 인프라 구축, 그 위에 탑재될 'K-원정대' 플랫폼을 말했다.

이 모델이 선교 기획자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K-원정대원들에 의해서 다듬어 지고 행진하는, 선교 인프라 및 올라타는 플랫폼으로 확산되길 고대한다.

새로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신진 세대가 밀려오고 과거의 시니어들은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가기 바쁘다.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르니 만나기도 쉽지 않다. 동질감 갖고 있는 가족형 화살표 선교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교회를 벤치마킹해 선교 플랫폼 및 어플을 만들어 구동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둘씩 둘씩 짹을 만들어 진행하는 옴니버스 릴레이 랠리 형식이 자리잡도록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의 든든함과 돌파력의 은사가 결합된 '프레이어prayer와 파이오니어pioneer' 개념과 실체가 짹을 이루는 방식을 구상해서 'K-원정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출 17:8-16처럼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현장의 여호수아를 본 따서 이렇게 명명해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움직일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임마누엘 로드'다.

〈코로나19〉시대에 드러난 비대면 온라인을 십분 활용해, 앞서 갈 현장을 먼저 보는 방식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후방 지휘소에서 생각하고 예측해 보는 것과 다르다.

현장으로 들어가자. 기존의 방식에 덧붙여 ‘선교지에서 살아 보기’로 말이다. 이것이 두 달, 세 달로 우리의 선교의 폭이 넓어지길 소망한다. 선교사로 헌신도 할 수도 있고 적극적 중보기도자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직접적 ‘교회 개척’을 향하는 다양한 유형의 선교(구제, 출판, 학교, 언론, 의료, 한국어, 요리, 음악 학교 등)가 해외 현장과 우리 국내에도 있음을 교우들이 체험변화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길 바란다.

하여 ‘K-원정대’가 도전, 모험, 낭만 그리고 고난도 함께 깔린 기쁨의 원정대이길 희망한다. 우리는 지금 길을 향해 길 위에서 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 가만히만 있지 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 1 | 과거 회상, 신앙고백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비참하다. 시44:8절과 9절의 반전.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는데...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 2 |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티엘(잠언 30:1- '이디엘')
- 3 | 정지용의 시 <행수> 중에서. 인용 변주.
- 4 | 첨조. 벤전 1:23-25, 시6:1-13, 사40:9, 빌3:14, 딤전6:12, 딤후4:7 등
- 5 | 빛Light 생명Life 사랑Love의 우주
- 6 | 참고, 창세기 28:10-17.
- 7 | 참고, 요한복음 1:50-51. 이는 급기야 고후12:1-10 사도 바울의 삼총천, 낙월 활성과 계시로 그 맥은 이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비교, 골1:28)
- 8 | 비시즌에 둘씩 둘씩 찍지어 가는 '수시로' 단기 선교팀.
- 9 |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근저에는 우리가 '세계관(world view)'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가정들이 있다.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그의 총체적인 인생관을 표현하는 실재에 관한 그의 전제들과 확신들의 총합이다." W. 앤드류 호퍼커, 「세계관을 세움에 있어서의 관점과 방법」 12,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사상」 앤드류 호퍼커 역음. 정총하 옮김. (서울: 1992, 기독지혜사)
- 톨 라이트는 이와 관련해 좀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 현세는 그의 그림자. 힘들지만 다른 세상으로 간다. 스토아 학파의 세상만사 결정됐기에 따라갈 뿐,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은 우발적, 그러니 즐기자. 쇄락의 관점들을 말하고 있다. 톨 라이트 지음, 이지혜 옮김, 「하나님과 팬데믹」 (서울: 2020, 비아토르) 15.
- 10 | 마기복음8:35
- 11 | 도로시 세이어즈 지음, 강주현 옮김, 수전 하워치 해설. (서울: 2007, IVP)
- 12 |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책,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사상」을 읽을 것.
- 13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 거대자료 분석...2021년 국내 관광 트렌드 전망
한 달 살기', '호텔재택', '무착륙 여행' 관련 핵심어 언급량이 전년 동기 약 240% 급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최근 3년 동안의 누리소통망과 이동통신, 신용카드(BC)의 거대자료를 분석해 2021년 국내 관광 흐름트렌드를 전망했다. 분석 결과, 2021년 국내관광 흐름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불안함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를 뜻하는 비트원(B.E.T.W.E.N.)의 7가지 단어로 요약됐다. 비트원(B.E.T.W.E.N.)은 ▲ 균열(Break), ▲ 위로(Encourage), ▲ 연결(Tie), ▲ 어디든(Wherever), ▲ 강화(Enhance), ▲ 기대(Expect), ▲ 주목(Note)을 말한다. <http://www.newsntt.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54>
- 14 |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목적지를 향하는 「옴니버스 omnibus 릴레이(relay 및 멀리 rally)」- 각각의 은사와 특성이 연합되는 뜻대 향한 장기간 이어가며 주고받는 승합마차 여정'
- 15 |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 16 |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 17 |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살으라 하시니"
- 18 |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밸로 밟고 돌아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밭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그러므로 무었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우선적 '존재의 상쾌함'(참고 창18:5) 여정.
- 19 | 앞의 커리큘럼, '영성지정학'을 참고.
- 20 | 전3:22상반절, 전5:18-20,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선물, 뜻, 천국(의), 평강과 희락- 롬14:17)

참고서적

1. 단기선교 퍼스펙티브, 백신종, 강승삼 감수, 두날개, 2008
2. 청년단기선교 A to Z, 이충성, 조이선교회, 2008
3. 하나님 백성의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 한화룡 역, M.P, 2012
4. 바울의 선교신학, 정경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5.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총론, J.마크 테리, J. D. 페인, 엄주연 역,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5
6.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김은수, 대한기독교서회발행, 2010
7. 단기선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전희근, 생명의 말씀사, 2019
8. 선교 핸드북, 심재두, 비전북, 2018
9. 단기의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심재두 외, 좋은씨앗, 2016
10. 단기선교 길라잡이, 조호중, 요단출판사, 2014
11. 인터넷 선교의 힘 웹 멘토링, 김은수,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 선교를 이루는 영성 –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선교의 힘, 수전 호프, 이민희 역, 브 랜든선교연구소발행 : 2019
13.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우리의 선교적 영성, 이 다니 엘, 비비투, 2020
14. 선교 현장을 가다, 수전 호프, 이민희, 브랜든선교연구소, 2019
15. 유럽 비전트립 시리즈1,2, 하용조, 두란노, 2012
16.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조이 도우슨, 예수전도단
17. 물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서승동, 예수전도단
18. 단기선교 매뉴얼, 김성은,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9. 목적이 있는 휴가, 킴 허스트 & 그리스 어튼, 예수전도단, 2011
20. 나를 보내소서 – 예비선교사를 위한 10단계 워크북, 스티브 호크 & 빌 테일 러, M.P, 2002

21. 늑대와 춤추는 어린양, 마이클 그리피스, GMF, 조이, 2001
22.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 그 시작과 마침, 글렌 마이어스, 패트릭 존 스톤, 조이, 1989
23. 보내는 선교사 – 후원자, 선교를 완성하는 힘, 닐 피롤로, 예수전도단, 2001
24. 선교사소명, 데비이드 실즈, 생명의말씀사, 2010
25. 마게도냐 프로젝트 핸드북 – 교회 단기선교 여행의 완벽 가이드북, CCC, 2001
26. 위대한 도전 단기선교, 매크 & 리앤 스타일스, 조이선교회, 2003
27. 십분의 일 선교, 팀 김순, 예수전도단, 1994
28. 선교 행전, 김진우,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9
29. 비전여행 워크북, 팀 디어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08
30. 추구, 이소벨 쿤, 생명의말씀사, 1992
31. 흥대에서 중동까지, 김홍빈, 도시사역연구소, 2018
32. 만화 열방기도정보 1, 2, 김종두, 넥서스CROSS, 2008
33.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기도 – 우리가 걸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그래함 켄드릭, 스티븐 호돈, 예수전도단, 2008
34. 글로벌 미션 핸드북 – 타문화 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스티브 호크, 빌 테 일러, MP, 2014
35.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드, CH 북스, 2011
36. 선교와 영적 전쟁, 이재완, CLC, 2011

참고할 유튜브  YouTube

▶ GMtv | 선교적돌파

MEMO

MEMO

*이 책은 생태보존을 위하여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충만한 교회(수원)에서 많은 부분 함께해주셨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단기선교 매뉴얼 4.0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발 행 일 | 2021년 10월 29일

발 행 인 | 오일영 목사(선교국 총무)

편 집 인 | 조성환, 이승미(세계선교 정책부)

준 비 위 원 | 강연희 원장(MMTC), 엄영선 목사(충만한교회)

우진영 목사(한빛교회), 이지영 목사(서광교회)

현철호 목사(백운교회), 황은성 목사(개포교회) / (가나다 순)

발 행 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세계선교 정책부)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 화 | 02-399-3954/4292

홈 페 이 지 | www.kmcmision.or.kr

디자인인쇄 | 디자인통(02-2278-7764)